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 수상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 제정 공로.. 입법활동 부문 수상

경북도의회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회장이 6월 24일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3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 조례안(입법활동)과 우수 연구단체(정책연구)로 나누어 선정한 의정대상에서, 경상북도의회는 정책연구 부문 대상(대표 배진석 도의원)과 입법활동 부문에서 3명(남영숙, 김희수, 박순범)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는 급식관계 교직원들이 폐질환 위험에서 벗어나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기정화시설 설치와 학교급식점점단 운영 등을 규정했다.

남영숙 의원은 지난해 9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2022년 경북에서 454명의 급식관계 교직원에게 폐질환 검진결과 무려 117명이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경북교육청에서는 2023년 본예산 729억,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278억 등 총 1007억 원을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 반영하여 조례제정의 성과를 나타냈다.

남영숙 의원은 "심혈을 기울였던 조례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면서 "이번 수상에 머무르지 않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추진 상황을 끊임없이 점검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는 것으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지방의회 최초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전세사기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대근)는 4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안 6건의 패키지 입법 추진 방안을 밝혀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전원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양재혁 동의대학교 교수,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과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시의회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 방안'과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 대응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발표한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양재혁 동의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부산도시공사 이을찬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구제반TF 이인애 차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정필승 변호사, 부산공인중개사협회 이찬희 공인중개사,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박민준 공동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장은 "지난 6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삼천여명에 달했는데 이 중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이삼십대가 절반이상을 차지했다"며,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피해자들에게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 근절 대책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오는 7월 임시회를 통해 피해자 지원 확대와 예방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송준진기자



충남도의회,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체계 구축 나서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지능검사 시행·위탁 여부 등 명시

충남도의회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가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대상으로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하 지능학생)'은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능학생 지원을 위

해 매년 지능검사를 수립·시행하고, 검사시기와 방법 및 대상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능학생을 조기 발견·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를 적극 조사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 시행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 파악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습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에 심의된다.

최정근기자



최호정 서울시의원, 없어질 뻔한 aT센터 앞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유턴 구간 살려냈다.

최호정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4)은 28일 제 319회 본회의에서 현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및 유턴구간 존치 청원의 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지역 주민 809명의 청원과 최호정 의원의 소개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접수되어 통과됐다.

현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에 포함된 영곡사거리 일대는 우회전하여 과천 또는 경부고속도로(양재IC)로 진입하는 다수의 광역버스와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서울시 대표 상습정체 지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대로와 현릉로 연결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하고 가로변에 산재되어 있는 광역·간선·지선 버스정류장을 중앙으로 통합 예정이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이 모두 중앙차선으로 이동할 경우 양재동 주민들의 버스

이용 환경은 더욱 불편해지고, 양재2동으로의 유턴이 폐지되어 지역의 접근성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해졌다.

최 의원은 지역주민 809명과 함께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조정, 양재지역 주민을 위한 aT센터 앞 기존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교차로 유턴구간을 존치해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최 의원은 청원소개를 통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릉로 일대 강남대로 구간에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재 계획한 대로 aT센터 앞 가로변 정류소를 이용하는 버스를 포함하여 모든 버스를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배치할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aT센터 교차로 앞 유턴을 폐지할 경우 기존 유턴을 이용하던 인근 양재동 주민들은 우회 거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청원이 통과되자,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는 발 빠르게 수용의사를 밝히고 대책강구에 나섰다.

먼저, aT센터 앞 교차로 유턴 존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가로변 정류소 존치 시키고 해당 버스노선은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협의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청원 통과 이후 신속하게 대응방안 마련한 서울시에 감사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영곡사거리에서 양재 IC를 경유하는 광역버스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와 서울시가 광역버스 노선조정·감축 등의 대안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추가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난방비 지원 조례 발의, 통과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제259회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의 영유아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하고자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난방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다.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24개국 중 한국의 출산율은 219위인 0.78%(명)이다. 또한 전라북도 평균 역시 0.82%(명)에 그치는 가운데, 지방인구소멸과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고심은 쌓여가고만 있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과 러시아-우라리아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제

유가의 급등이라는 악재가 겹치자,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남원 시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남원 관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한하여 일정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2023. 5. 31. 기준 남원시 관내 2017년 1월부터 2023 현재까지 출생한 영유아 수는 2,446명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694가구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157가구로, 1가정당 연간 60만원의 한도에서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1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해당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다자녀와 영유아를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령이 있었으나 영유아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전국 최초 사례로, 읍면지역이 넓어 도시가스가 모든 지역에 공급되기 어려워, 거주 지역에 따른 난방비의 부담이 천차만별인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의 실정을 가장 빠르고 적절하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하여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남원살이에 불편하여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남출기자

장은영 전남도의원, '영광불갑천' '돈섬보' 장마철 농경지 침수 대비 현장점검

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장마철 도래와 함께 몇 년 전부터 제방 무너짐으로 인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영광불갑천에서 현재 임시 물막이(가체철)가 설치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장 의원은 "공사를 위해 설치된 임시 물막이로 인해 상류 논들이 침수되어 위험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전남도청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에 즉각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돈섬보' 물막이를 터지지 않아 상류 논들이 침수됐고, 긴 장마로 인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임시 물막이를 즉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최근 며칠 간의 폭우로 인해 불갑천수지의 물은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에 더 큰 재난이 생기기 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과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했다.

장 의원은 "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장마철에 대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도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빠른 대응을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지역은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공간이며,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공사 현장 역시 피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주도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임시 물막이 일부 긴급 개방은 장마철 영광군 지역의 농경지 침수 피해가 줄고, 장 의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배기자

민주평통 영덕군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덕군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영덕군청 제1회의실에서 자문위원 및 대항기관장, 대항기관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국제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촉구에도 침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알아보고 북한 내 인권 침해, 제3국에서의 인권 침해,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 자문위원의 역할과 실천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2분기 통일외교 수렴에 앞서 '제1분기 의견 수렴 결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1분기 의견 수렴 주제는 '2023년 남북관계 전망과 한국 정부의 과제'였으며 남북협력 관리 및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당면과제 소한반도 주변의 긴장완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등의 내용이 수렴되었다.

이 가운데 '북핵위협 관리 및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당면과제'로는 조건 없는 남북대화추진, 북한 군사행동 대비 국방력 구축 등의 의견이 상위 과제로 도출되었으며, '한반도 주변의 긴장완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위해서는 중국·러시아와의 균형외교강화, 국제사회 지지를 위한 전방위 외교 등이 주요 과제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로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소통, 자문위원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정부 정책 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신명중 협의회장은 "북한 인권문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고 국제사회의와 공조를 통해 압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윤근수기자



며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함께 대내외에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등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 생활 속의 인권개선과 인권의식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1년 9월 1일 민주평통 20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 동안 우리 자문위원들께서 고군분투해 오신 것을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영덕군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20기가 마무리된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주셨듯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마쳤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각 협의회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소통 결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수렴된 의견을 축적해 정책건의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 치 부:대선 (112)	문 화 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대선 (113)	부 송산부:대선 (117)
	경 계 부:대선 (114)	요 매니언부:대선 (118)
	스 포츠부:대선 (115)	지 방 부:대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노을과 즐기는 색다른 한강... '한강노을즐김터' 설계공모 추진

서울시는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을 위해 7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강노을즐김터'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름답고, 다채로운 한강 노을을 활용하여 도시와 한강이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감성조망명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지난해 시민 사진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노을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대상지는 시민이 직접 뽑은 노을명소를 사진촬영수, 접근성, 경협요소(랜드마크.전망), 주변과의 연계성 등 다각

도로 분석한 후 선정됐다.

시는 노을명소 중 활용도가 낮거나 설 곳이 부족한 장소를 선정하여, 콘텐츠와 감성적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편안한 심과 문화가 있는 여가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공모전에 응모하려면 노을명소 20개소 중 '신설' 분야 1개소 또는 '재구성' 분야 3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한강의 감성과 매력을 살린 노을 즐기기 명소의 공간 계획안과 함께 노을 스토리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는 건축, 조경, 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생, 일반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등록과 작품 제출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참가 등록 업체(참여자)는 7월 13일에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22일까지 설계안을 제출해야 한다. 작품심사 후 8월 31일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설명회는 서울시 관광선을 운항하여 참가자들이 한강에서 보고 느끼는 감성과 매력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 공지 예정)

올해 공사 예정인 '신설'분야에서 선정될 1등 1팀(명)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이 부여되고, 2등 800만 원, 3등 500만 원, 4등 300만 원 등 총 상금 1,600만 원이 부여된다.

심사 기준은 독창성, 심미성, 실현 가능성 등이며, 심사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등은 심사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해 시민 사진공모전 수상자를 비롯한 일반시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이 발굴한 명소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작품을 직접 선정하는 시민 참여형 공모로 진행된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와 취향을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매력있는 한강을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다.

설계공모에 출품된 작품과 노을 스토

리는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스토리북'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수상작은 서울시 각종 홍보 및 정책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한강노을즐김터 설계공모"를 통해 한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시민 모두와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직접 발굴한 노을 명소를 한강의 감성과 매력을 담은 공간으로 만드는 재미와 의미가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한강의 노을을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박준희 관악구청장, '민선8기 취임 1주년' 맞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7월 3일, 민선 8기 취임 1주년 맞아 기념행사 대신 현장 방문해 초심 다져...

민선 7기부터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꾸준히 이어온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이정득심(以聽得心)' 행정 구현' 실현을 위해 지역 현장 곳곳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박준희 구청장은 7월 3일 민선 8기 취임 1주년 첫 업무를 이룬 아침 환경공무원과 함께 재활용품 수거로 시작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고온의 날씨에도 주민들의 청결한 생활 환경을 위해 애쓰고 있는 환경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격려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오전 9시 30분에는 관악구청 전 직원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구청장은 코로나19, 수해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관악구의 주요 정책이 주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준 관악구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오전 11시 30분에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급식 봉사에 직접 참여했다. 앞으로도 효도 구청장으로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박 구청장은 주민 안전 살피기도 빼놓지 않았다. 오후 2시 30분에는 산사태 복구, 물막이 판과 개폐형 방범창 설치 등 수해 대응 현장과 신림봉천터널 공사장, 남천소공원 공영주차장 등 주요 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안전을 당부했다.

박 구청장은 "안전 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린다"고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안전을 강조했다.

박 구청장의 현장 행보는 저녁까지 이어졌다. 오후 6시에는 관악청년청에서

개최된 관악S밸리 스타트업 네트워킹 데이 '관악s나잇'에 참석, 관악S밸리 창업인 등 관계자 100여 명과 자유롭게 소통했다.

특히, 입주기업 대표 1인과 '대표대 대표'로서 '내가 꿈꾸는 관악S밸리의 5년 뒤 모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관악S밸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입주기업들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청취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난 5년간 숨 빠르게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지속적인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사회적 약자를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치를 핵심 가치로 삼고 힘차게 달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겠다."

다시 한번 초심을 가슴속에 새기며 남은 임기 동안 구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강석 송파구청장,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취임 1주년 맞아 주요 사업 현장방문...2년차도 '섬김행정' 주력

주민의 불편함 선제적으로 파악해 개선해나가는 '적극 행정' 구현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6월 30일,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약 추진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구현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앞서 6월 27일, 서 구청장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마에 대비해 지난해 취임 당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장지동 화훼마을과 관내 3개소 빗물펌프장을 방문해 취임 1주년을 맞아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날 서 구청장은 가장 먼저,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현장은 문화재 발굴 작업으로 한동안 공사가 중지됐다가 송파구의 적극행정으로 지난해 공사가 재개됐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은 "송파구의 중재로 보통 10개월 이상 걸리는 문화재 이전보존 조치를 이례적으로 4개월 만에 완료하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이에 서 구청장은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678세대가 임주를 기다리는 대단위 규모의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구는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송파구의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책임자와 공직자들에게 "집을 지을 때 중요한 본질 첫째는 에너지 세이프, 두번째는 층간소음문제다. 시공할 때부터 신경 써야하는 부분이다. 명품 주거도시 송파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피고, 항상 안전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위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위례선 트램과 위례 호수공원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살폈다.



서 구청장은 "위례호수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남은 공사 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것"을 당부하며,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호수에 물이 채워지는 시기를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현장 트램 공사 관계자로부터 11월 말이면 호수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한, "공사 완료 시까지 큰 비가 내려도 호수에 문제가 없도록 순찰과 점검을 강화해 달라"며 '주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겼다.

이어, 잠실여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공정을 70% 상태인 현장을 둘러본 서 구청장은 학생들이 하교길에 도로와 인도를 혼용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학생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안을 주문했다. 서 구청장은 "잠실여고 앞 도로는 학생들의 통학로인 만큼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교 측 및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이홍수/기자

강남구, 강남 100년사 담은 '리마인드 강남' 특별전 개막!

3일 15시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토박이 주민 8인 초빙 개막식 성료...8월 31일까지 전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3일 15시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강남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리마인드 강남' 특별전 개막식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은고지산'의 자세로 강남의 옛 발자취를 돌아보고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전이다.

8월 31일까지 구청 본관 2층에서 서울

역사박물관의 '한티마을 대치동' 기획전을 강남구로 이전해 재구성한 전시물을 공개한다. 또한 7월 7일까지 본관 1층 로비에서 100년 역사가 깃든 관내 학교 6개교(경기고, 경기여고, 수도공고, 숙명여고, 중동고, 휘문고)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150점과 구민들의 옛 소장품을 전시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남 토박이 주민 8명이 참석해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던

강남구가 글로벌 명품도시로 성장하는 상전벽해 과정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강남의 살아있는 역사를 되돌아보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역사와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유성훈 금천구청장, 민선8기 1주년 시작은 '구민 현장 속으로'

주요 사업 현장 점검하고, 청년, 어르신, 장애인 시설 방문해 구민과 소통

금천구는 7월 3일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점검 및 구민 간담회에 앞서 민선 8기 1주년을 기념하는 직원 정례조례를 실시해 금천구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신안산선 건설공사 지하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시흥빗물펌프장에서는 수해 대비 수방 시설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청춘벨딩, 구립시흥노인교실, 지적장애인센터를 방문해 구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춘벨딩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도시락 간담회를 열어 구정에 대한 청년들의 바람을 청취하고, 구립시흥노인교실에서는 어르신들과 차담회를, 지적장애인센터에서는 쉼터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직원 정례조례에서 "직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행정을 자유



롭게 펼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힘을 더해 드리는 혁신과 변화의 여정

에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 주길 바란다"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박황신/기자

민선8기 경기도 1년. 유래한 반란. 기회수도 경기도의 초석을 놓다

- 투자: 반도체, 신소재 등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10조 원의 투자유치 달성
- 기후: '경기 RE100' 선포하며 도와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 나서
- 글로벌: 해외 주요 국가 대사와 고위층이 경기도 찾으며 경제교류·협력 강화
- 청년: 경기청년사다리와 청년캡이어 프로그램으로 도내 청년에게 기회 제공
- 돌봄: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해 벼랑 끝에 몰린 1,841 위기가구 지원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자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씬 없이 달려온 경기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한 민선8기 경기도의 지난 1년은 '투자' '기후' '글로벌' '청년' '돌봄' 5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본다.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달성은 현재 진행형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기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며 민선8기 출범 후 1년여 동안 약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제조와 미래연구소 집중 유치에 성공하며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어플라이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연구소가 모두 경기도에 터를 닦게 됐다.

도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어플라이머티어리얼즈(미국) 연구개발센터와 세계 1위 전력반도체 기업 세메이(미국) 신소재 첨단 연구 및 제조시설을 유치(1조 4천억 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네덜란드)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다. (2,400억 원)

올해 들어서는 1월과 4월에 세계 1위 산업용 가스 기업 린데(미국)의 반도체 희귀가스, 수소 충전시설 및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6,500억 원)이 들어오게 됐다. 특히 3월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투자유치의 꽃을 피웠다.

경기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해외로 나가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4월 세계 3위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미국)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유치,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 세계 최고 기업 알박(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테라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도쿄코카공업(일본)

평택에 첨단 제조시설 투자 등 미국과 일본에서 총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 (주)그리너지와 'K-배터리 협약체결'(1천억 원/23.2.), 부천대왕공공주택지구에 1조 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1조 원/23.4), 외투기업 ESR켄달스퀘어(주)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 투자유치(3조 원/23.4.), 세계 10위 반도체기업 ASM, 화성에 제2 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1,350억 원/23.5.), 평택에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1,540억 원/23.5.) 등 공격적 투자유치로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는 '글로벌기업 유치' 경기도의 공약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고 임기 내 투자유치 목표를 125조로 설정했다. 125조 원 투자유치는 '글로벌기업 유치' 30조 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 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 원 등이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 ▲혁신 산업 분야 기회부여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더 확대했다. 기존에는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와 교류, 경제 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모든 실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 RE100',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민선 8기 경기도는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비전 아래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는 민선 8기 동안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5월에는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경기도가 최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 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공공기관의 RE100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을 시작하고 4월부터는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 주요 정상과 경제교류 협력강화 동맹 경기도가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민선 8기 들어 눈에 띄게 활발해진 부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글로벌 행보에 대해 "국제화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7월 콜린 크록스 주한 영국대사를 시작으로 미하일 라이펜슈틀 주한 독일대사(22.8.),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22.8.), 타마라 마위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22.9.)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22.11.),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23.2.), 아미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23.3.) 등 각국 대사들이 경기도를 찾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에는 김동연 지사가 첫 해외 방문을 통해 미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과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를 만나 자동차와 이차전지,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무역·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센티스 주지사와 만나 국제경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양 지역 공동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지사와 만나 헬스케어 등 상생 발전 사업을 논의했다.

또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22.8.),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22.12.),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23.5.), 나프탈리 벤투 전 이스라엘 총리(23.5.) 등을 만나 인적 교류와 기후 위기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런 글로벌 외교가 투자유치는 물론 경기도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양 지역 인적교류, 문화·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 - 청년 기회패키지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미국 미시간대·뉴욕주립대 버팔로·워싱턴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등 해외 명문대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 200명을 선발

지원한다.

150명을 선정하는 첫 모집에서는 4,68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1대 1에 달하는 등 경기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기청년 캡이어'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청년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19~34세의 경기청년 총 600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기획하는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 분야별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 기술 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 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1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 생활도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는 지난 21일 하나은행과 1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핫라인, 장애인 기회수당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추진
고물가와 고환율 등 경제위기에서 출발한 민선 8기 경기도는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했다. 소외되는 계층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벼랑 끝에 몰린 이

들을 긴급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했다.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통전화를 가능한 것으로, 위기 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도는 5월 31일 기준 위기에 처한 1,841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단, (가칭)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운영해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도는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직업훈련장애회원 기회수당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를 만 19세 1,200명에서 만 19~21세 3,6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로 노인 일자리를 9만 개에서 올해 10만여 개로 1만여 개 늘렸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최만식/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평생학습 성과관리체계 글로벌 확산 논의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양시와 협력 MOU 제안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과 함께 고양시 성과관리체계 모델의 글로벌 공유 및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환 시장은 3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포용적 평생학습 컨퍼런스(Conference on Inclusive Lifelong Learning)' 현장에서 라울 코테라(Raul Valdes Cotera)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 정책본부장,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 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라울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정책본부장은 "고양시 평생학습 성과관리체계(교육기획)가 선도적 모델로서 글로벌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국가 및 도시차원의 성과관리체계 모델 개발과 적용을 위해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협력 사항으로 ▲보고서 발간, 관계자 연수지원 등 고양시의 프로세스 및 결과 활용 경험에 대한 국내외 사례전파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국내외 확산 및 점검을 위한 워킹그룹 주도 ▲고양시 평생학습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및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조직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과 실천을 위한 MOU 체결도 제안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유네스코



코 GNLC(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의 교육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부문 리더 도시로서, 국내외에 우리시의 활동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며 "고양시의 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지난달 2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172차 국제박람회 총회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학습도시인 고양특례시도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유네스코 GNLC 회원도시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향후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은 고양시와 함께 MOU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에서 공동주최하는 '포용적 평생학습 컨퍼런스(Conference on Inclusive Lifelong Learning)'에 공식 초청받아 참석했다. 4일 '다층 거버넌스 체계에서의 모니터링 및 증거 기반의 포용 정책을 위한 데이터'를 주제로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실패분석과 재도전이 창업 성공열쇠"

4일 용인청년LAB '창업&레벨업 아카데미' 개강식에서 수강자 격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용인수지 청년LAB에서 열린 '2023년 용인청년LAB 창업 & 레벨업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용인청년LAB 수지에서 열린 '창업(UP) & 레벨업(UP) 아카데미' 개강식에서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개강식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용인 청년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우리나라가 번영을 이룬 것은 기업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일본에서는 실패학을 중요시해 왜 실패했는지 실패 교훈을 얻고 다시 도전한다. 창업이 쉽지 않겠지만 계속 노력하면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창업아카데미는 초기 창업자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이며 '성공하는 창업 아이디어', '청년창업가의 아이디어 지키기, 특유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특강과 참여자 간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오는 20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하루 3시간씩 모두 6회(총 18시간)로 진행된다.

과정은 '코로나를 기회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성공스토리', '영화 다음소희 제작자의 영화와 투자, 홍보 이야기' 등 선배 창업자의 노하우와 실천 창업스토리 등 다양한 분야도 다룬다. 창업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 및 홈페이지 제작 관련 실무교육도 병행한다.

아카데미 수료자에게는 향후 용인청년LAB창업관련 프로그램 우선 참여기회와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최만식/기자

시흥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시흥시는 4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기 광명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 단체장 및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 관계자와 함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유성훈 금천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정태호 의원, 최기상 의원, 문정복 의원, 양기대 의원, 임오경 의원, 양이원영 의원, 박준희 관악구청장(이영기 부구청장 대참) 등이 참석했다.

'신천~신림선'은 시흥시 신천동을 시작으로 광명시와 금천구, 관악구 신림동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이 지역에서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 편의 향상과 더불어,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전철사업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3기 시흥광명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천~신림' 간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관련 지자체 및 경

기도가 사업 추진 공동협약을 맺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용역을 통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반영 기준을 준용해 경제성(편의 비용), 사업타당성, 정책적 분석으로 최적 대안 노선을 선정하고, 대안별 수송수요 예측, 건설 및 운영 계획을 검토한다. 이로써 신천~신림을 연결하는 최적 노선을 발굴하고, 대안 노선과 비교 검토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천~신림선이 시흥광명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면 4개 지자체를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의 철도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흥광명신도시에 계획돼 있는 남북철도와 함께 신천~신림선이 해당 지역 동서 간 광역교통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특레시다운 특레시 만들겠다"

취임 2년차 맞아 시정브리핑...핵심키워드 '균형발전' '소통' '특레시다운 특레시'

민선8기 취임 2년차를 맞이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4일 "100만 시민시대, 특레시다운 특레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을 통해 지난 취임 1년 소회와 앞으로 화성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의 취임 2년차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 '소통' '특레시다운 특레시'라 할 수 있다.

정 시장은 화성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도시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생활권을 4개(동부, 서부, 남부, 중부) 권역으로 나눠 발전 방향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설명했다.

먼저 동부생활권은 ▲첨단산업 거점 기능과 보타닉가든 조성 등 도심 내 녹지 확충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서부생활권은 ▲연구산업과 행정의 중추 역할로 도심 기능 강화 ▲해양 레저관광 특화로 관광산업 육성 및 기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남부생활권은 ▲자동차, 바이오, 제약산업 연계로 지역 기반산업 클러스터 구축 ▲낙후된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비도시 지역의 균형발전 기간 조성, 중부생활권은 ▲3기 신도시 및 원도심 활성화

로 신규 지역거점 육성 ▲철도 및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 교통시설 연계로 신규 성장 동력 발굴 등으로 도시 균형발전 기틀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소통'은 시민 중심 행정의 근간이라며, "시민과 늘 함정에서 가까이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주민생활 불편 등의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바퀴달린 시장실', '읍면동 사회단체 간담회', '시정브리핑'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지속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빠른 날 10월 인구 100만을 달성한다. 정 시장은 화성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특레시다운 특레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면서 임기 내 대도시 행정 수요를 뒷받침 할 4개 구청 설치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21일 개원하는 화성시연구원을 통해 100만 특레시에 걸맞은 시정 발전 방향과 맞춤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화성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100만 화성 시민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3월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지난 6월 28일에는 '시



민중심 100만 특레시 준비위원회'를 구성, 균형발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정 시장은 또한 '민생과 대전환'에 역점을 두고 ▲교통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 마련 ▲민생 안정 ▲복지정책 강화 ▲문화체육관광 도시 조성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준비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때로는 따끔한 지적과 애정이 담긴 비판,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해주면 화성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완성해 가는데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애써 줄 것을 당부했다.

양시현/기자

평택시-삼성전자 '1사 1하천'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는 삼성전자와 3일 서정리천 생태복원 및 건강한 하천 조성을 위한 '1사 1하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황하섭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택시와 삼성전자는 삼성반도체 산업단지가 위치한 평택시 서정리천 일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주기적인 하천정화 활동을 통한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북부 도심의 대표하천인 서정리천을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건강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협약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정리천이 시민들이 자주 찾고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지난 2011년부터 '1사 1하천' 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하천 합동정화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 환경개선 사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민·관·산이 함께하는 새로운 모델의 '1사 1하천' 운동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시현/기자

수원시,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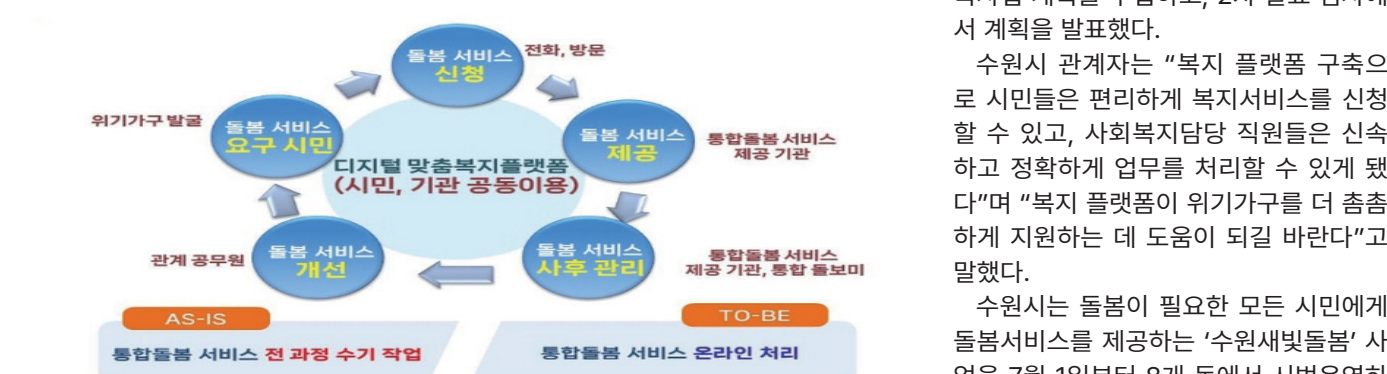
'시민 체감형 디지털 맞춤 복지플랫폼 조성'으로 선정... 앱으로 간편하게 돌봄서비스 신청할 수 있어

수원시가 '시민 체감형 디지털 맞춤 복지플랫폼 조성'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수원시는 특별교부세 7억 1400만 원을 받는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55개 기초지자체가 응모했고,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민 체감형 디지털 맞춤 복지플랫폼은 7월 1일 운영을 시작한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기존에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시민이 동행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새빛톡톡' 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앱으로 돌봄 서비스 신청·조회, 사후 관리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복지플랫폼 구축 전에는 민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취합하고, 수기로 분석해 위

기가구를 발굴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에 연계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수 있다.

수원시 스마트도시과가 복지플랫폼 구

최만식/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과 함께 광명 대전환 시대 열겠다"

박승원 시장, 3일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 "도시 회복력, 경쟁력 키울 것"

"시민과 함께 광명 대전환 시대를 열겠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3일 오전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은 시민자치 시대를 여는 과정이었고 시민의 잠재력이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광명의 더 나은 미래,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시민과 함께 열어나가는 광명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민선8기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광명의 대전환을 위해 '도시 회복력'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한 30만 시민의 '시민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광명의 혁신과 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주권'을 행사한 모범 사례가 된 '구로차랑기차 광명 이전 백지화'에 대해서는 "공통의 가치를 위해, 내 삶의 터전을 지켜낸 시민 자치의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민생경제, 탄소중립, 정원도시 등 도시 경쟁력 강화 추진

박 시장은 "광명시는 코로나19와 고물가, 기후변화 등 예기치 못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 탄소중립, 정원도시, 사회안전망 분야의 정책을 강화해 도시 회복력을 키워왔다"며 "앞으로도 위기에 강한 회복력 있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추진해왔다. 난방비 인상

등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당정을 초월한 협치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고, 특례보증 확대,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연중 지원, 영업환경 개선, 경기도 최초 노란우산공제조합 가입비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박 시장은 자연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반을 다져왔다면 앞으로는 일자리를 만드는 탄소경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와 녹색교통 확대, 자원회수시설과 업사이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순환경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 전담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조직하는 한편, 시정 전반에 ESG행정을 접목해 추진했다. 특히 1.5°C 기후의 병과 탄소포인트제도 등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닦고 있다.

박 시장은 공간복지와 탄소중립,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원도시'를 꼽고 "진정한 정원문화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안양천 지방정원 사업, 안양천 댐공원 철산동 가로숲길 조성, 2023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가학산 수목원 및 영희원 수변공원 조성, 어린이공원 내 정원 조성 등을 추진해 정원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난 안전망을 튼튼히 정비해 도시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청소년, 신중년, 어르신 등 세대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또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폭우 등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도입,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도시 경쟁력 강화 위해 평생학습, 사회적경제, 자족도시, 평화도시 추진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도전의 문 앞에 서 있다"며 "광명의 미래 100년을 만들기라는 도전을 성공하기 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인구정책, 평생학습, 사회적기업, 자족도시, 평화도시를 도시경쟁력 강화 위한 핵심과제로 꼽았다.

박 시장은 "인구는 도시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가름하는 잣대"라며 출생부터 웰다잉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육아 장려금, 출산축하금, 아이돌보미,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예술창작소 신설, 권역별 청소년활동센터 리모델링, 제2청년동 조성, 전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 등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층은 인생다모작센터와 평생학습 지원금을 통해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년층은 일자리와 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센터, 디지털경로당,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진행한다.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과 공교육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박 시장은 "도시의 경쟁력은 시민으로부터 비롯된다"며 "평생학습과 교육에 투자는 맞춤형 지원을 시가 성장하는 만큼, 지금껏 그래왔듯이 평생학습과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3년 간 추진해온 자치대학을 시대 흐름에 맞춰 개편하고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무상교육, 무상조기교육, 입학축하금 등 3대 무상교육을 비롯해 체육복 지원, 다목적 체육관 보급, 디지털혁신허브 구축 등 청소년 역량 강화에 나선다.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박 시장은 "민선7기 사회적 경제의 양적 육성에 집중했다면 민선8기에는 질적 변모를 위한 제2의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ESG경영 지원, 공공관광 등 협력형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육성,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흥 3기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문화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는 주거와 상업, 업무지구가 어우러진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신도시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GTX B노선, 신천~하안~신림선, 광명·시흥선 등의 철도와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망과 교량 신설을 추진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도시로 견인하겠다고 밝



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발전 구상도 밝혔다. 광명권역은 국립소방박물관, 과학관, 영유아 및 청소년 체험시설 조성, 어울리기 행복센터, 문화발전소 건립을 통해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특성화한다.

철산·하안 권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하안동 K-혁신타운 조성, 철산공영주차장과 하안동 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일자리와 주거, 교통 인프라를 갖춘 자족 가능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소하·일직권역은 신속한 구름산지구 개발과 광명역세권 활성화사업, 문화복합단지 추진 등을 통해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의 미래를 위해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평화'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KTX광명역을 출발한 기차

가 한반도를 가로질러 유럽대륙을 달리는 가슴 벅찬 미래를 상상한다"며 "문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평화 도시'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명시는 KTX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을 위해 도라산 기차여행,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이번 구로차랑기차 광명 이전 반대 투쟁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늘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 위기, 민생의 위기이다. 광명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시민과 함께, 광명의 대전환을 위해 더 단단하게 일하겠다"는 각오로 민선8기 1주년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윤용민/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속되는 집중호우에도 민생 최우선”

국지성 돌발폭우 우려...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 대응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오전 호우 대비 재난대책 보고회를 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도내 총 200mm의 집중호우가 내린데 이어 5일까지 추가 비 소식에 예보돼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5일까지 이틀간 50~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주민의 선제적 대피, 위험 시설의 붕괴징후 예찰, 사회복합시설-취약계층 특별관리 등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강우량이지만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돌발폭우로 위험이 따르는 곳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 마을 주변 산지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적용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6월 말부터 꾸준히 비가 내려 지반이 물러지고 약해져 적은 비에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인명피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각 분야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대피 등으로 피로감을 느낄 도민을 잘 위로하고, 필요한 경우 위문품 지급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남에선 지난달 27~28일 150mm가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4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재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도민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이다”며 현장에서 적용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당부하고 있다.

넘는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 1명, 주택 침수 7동, 농경지 침수 1천917ha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박중배/기자

완도해경, 장마철 폭우와 짙은 안개 속 바다의 앰블런스 역할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장마철 저시정이 발효된 가운데 폭우와 짙은 안개를 뚫고 도서지역 응급환자 3명을 긴급이송했다고 4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18시 29분 무렵 완도군 청산도 주민 A씨(남, 10대)가 복통을 호소하여 보건지소를 내원, 맹장염이 의심되어 육지이송을 요청했으며, 같은 날 19시 14분 무렵 평소 고혈압 환자이던 완도군 노화도 주민 B씨(남, 60대)가 혈압주사를 맞아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보건지소를 내원, 뇌출혈이 의심되어 긴급이송했다.

또한, 같은 날 20시 07분 무렵 완도군 청산도 주민 C씨(남, 40대)가 병원에서 진료 후 택에서 쉬던 중 심한 두통과 어

지러움증이 호소, 폐렴과 뇌수막염이 의심되어 육지이송을 요청했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급파, 상황실과 각 세력의 긴밀한 연계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육지에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신속히 인계했다.

완도해경은 ‘23년 현재까지 이송한 응급환자는 총 88건(91명)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바다의 앰블런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육지와 떨어진 섬 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도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영욱/기자



강종철 화순부군수 취임 “군민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열린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화순군은 7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종철 부군수 취임식을 개최했다.

7월 중 정례 조희와 함께 진행된 이날 취임식은 도청관계자,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종철 부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모든 행정과 정책은 현장을 기본으로 하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군민께 더 가까이 다가갑시다”라고 말하며, 직원들에게 현장행정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즐겁고 보람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강종철 부군수는 해남 출신으로, 1989년 3월 행정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전남도청 홍보기획팀장, 세정팀장, 인사팀장, 농식품유통과장, 총무과장 등을 역임하고, 7월 3일 자 전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화순 부군수로 부임했다.

윤경호/기자

라고 강조했다.

강종철 부군수는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공경 목표를 실현하고, 관광객 500만 시대, 농민이 잘사는 부자 농촌·백신·바이오산업이 선도하는 인구 10만 자족도시 화순을 만드는 데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겠다.”라고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구북군 화순군수는 인사말에서 “강종철 부군수는 전남도의원 시절부터 지켜본 능력과 경험이 출중한 공무원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부군수로 모시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순으로 오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강종철 부군수는 해남 출신으로, 1989년 3월 행정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전남도청 홍보기획팀장, 세정팀장, 인사팀장, 농식품유통과장, 총무과장 등을 역임하고, 7월 3일 자 전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화순 부군수로 부임했다.

윤경호/기자

영광군, 2024년 전라남도 양대 체전 대회 상징물 선정

영광군은 2024년 4월 영광군에서 개최하는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 및 제3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상징물 공모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전라남도의 전통과 역사, 문화와 비전 등 전남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군정 목표인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의 실현의지를 내포하는 주제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1일간 진행된 상징물 공모에는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5개부문, 16점 작품을 당선작 및 가작으로 선정했다.

입상작 명단은 영광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당선작은 각 200만원(가작 각 50만원), 구호 및 표어 당선작은 각 50만원(가작 각 25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상징물은 하반기 중 전라남도 체육회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활용될 예정으로 군 관계자는 2024년 영광군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 양대 체전이 많은 도민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홍보에 상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원규/기자



영광군,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최우수상'선정

“사계절이 사는 집”전남 고품질 브랜드 쌀 7년 연속 선정

영광군은 지난 3일 전라남도에서 주최한 ‘2023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사계절이 사는 집”이 최우수상에 선정됨과 더불어 7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판매 시장에서 무작위 시료를 구입하여 전문기관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분야별 전문 분석기관의 시료 분석을 통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고 품위, 밥맛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사계절이 사는 집”은 영광통합RPC에서 친환경단지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고품질 쌀로 GAP인증 등 최신 시설에서 가공하여 최고의 품질과 미질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브랜드 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영광통합RPC, 행정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최고의 고품질 브랜드 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원규/기자

비자들에게 고품질 브랜드 쌀로 인정받고 있다.

영광군은 전국 최고의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해 영광통합RPC의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홈쇼핑·온라인·직거래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전국단위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 쌀이 전남 고품질 브랜드 쌀이 아닌 전국 최고의 고품질 브랜드 쌀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영광통합RPC, 행정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최고의 고품질 브랜드 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원규/기자



해남군 사회적경제기업 5년만에 2배 이상 증가 122개소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중물 역할 톡톡”해남군, 전남 유일 사회적경제 우수지자체 선정

해남군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해남군의 사회적경제기업은 현재 122개소로, 2018년 54개소에 비해 5년만에 두배이상 늘어났다. 관련 예산 또한 2018년 1억여원에서 올해는 12억여원으로 10배이상 증가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이윤의 추구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해남군내에는 사회적기업 11개, 마을기업 20개, 자활기업 5개, 협동조합 86개 등 총 12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설립된 가운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남군 사회적경제기업의 증가는 민선8기 중점과제로 ‘사람중심 사회적경제 확산’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군은 해남형 사회적기업을 자체 육성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3억4,800만원, 사업개발 및 지역특화사업 8,200만원, 마을기업 육성 2억3,000만원, 해남형 새싹기업 육성 4,000만원, 창업학교 2,600만원, 금융지원 4,5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매지원과 기업 인증 환관 제작 등을 실시하며,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육성해 자원을 조사하는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공급 기반조성 사업과 기업 판로 축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농업 분야에도 두각을 나타내 올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전문가의 답변과 조언을 들었다.

군 관계자는 “세금 문제도 고충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마을세무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무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갑문/기자

력의 성과로 해남군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행안부 주관 2022년 사회적경제 육성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에 이어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가치 구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올해 중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진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강진군은 지난 6월 28일, 송정마을회관에서 진행된 군민행복 희망나눔사업에 참여하며, ‘2023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는 경제적·시간적 이유 등으로, 세무사무소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이 세무사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상담은 청자골세무회계사무소 김홍식 세무사와 세무회계과 직원인 종합소

득세, 상속, 증여, 노후 재산관리 등에 대해 무료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평소 생활과 밀접한 세금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며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답변과 조언을 들었다.

군 관계자는 “세금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마을세무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무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추운호/기자

한편, 2016년 도입된 마을 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강진군은 올해 마을 세무사 1명을 추가로 위촉해 현재 2명의 마을 세무사가 군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관련 문의는 강진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구례군 에코원정대, '수국정원의 여름이야기' 체험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고품격 생태교육

전남 구례군은 지난 1일 구례수목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에코원정대 2회 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은 수국이 절정을 맞은 구례수목원에서 이뤄졌다. ‘수국정원의 여름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생태자원 이해, 야외모기장 체험, 미꾸라지 생태 알아가기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자연 생태환경을 배우기 위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에코원정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으로도 구례군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7월 15일 지리산역사문화관



김성현/기자

김성 장흥군수, 민선8기 1주년 '기업인과 소통' 나서 장흥바이오식품 산단 대표 등 30명과 오찬 간담회 개최



김성 장흥군수는 3일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 기업인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입주기업 대표와 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인력 공급 문제와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력확보와 시설 개선도 적극 추진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바이오식품 산단은 현재 분양률 65%를 기록하고 있다.

식품제조업 등 81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48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현재, 5개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 신속 공사 진행 중이다. 김성 군수는 간담회에 앞서 산업단지내 표고버섯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데이앤바이오 공장을 방문했다. 김 군수는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청년 근로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어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겠다.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민선 8기 2년차 첫 정례조회 '8760 시간의 소회와 26280 시간의 나아갈 길' 강기정 시장 "직접소통 다양화·제도화 하겠다"

"시장은 소통을 통해 눈앞에서 이야기 하는 시민뿐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시민까지 고려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길이 옳은지, 속도는 어떠한지, 광주시의 정책은 시민 행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직접소통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예산을 수반한 정책으로 '소통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8760 시간의 소회와 26280 시간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취임 2년차 첫 정례조회를 열었다. 강 시장은 먼저 군공항특별법 제정, 광주다음 통합돌봄 시행, 무등산 정상 개방,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등 지난 1년 간의 값진 결실을 이야기하며, 시정 추진에 애쓴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지난 1년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저와 여러분이 신뢰를 쌓고 친해진 것"이라며 "깊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무엇보다 좋았고 이 점이 제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직접소통의 다양화·제도화'를 강조했다. 정책적 균형을 위해 시민

과 '직접'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제도화'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시장의 소통이란 만남·경청·공감에 더해 예산을 수반한 정책으로 실현될 때 완성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과 책임이 따르고, 눈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시민뿐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시민까지 고려해 시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광주와 다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소통의 제도화다. 다양한 이슈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더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직접소통 제도화를 통해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속도가 너무 더디거나 빠르지는 않은지, 시민 행복을 위한 것이니 끊임없이 고민하며 방향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공직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자유토론의 장인 일일상황회의, 화요오찬, 금요전략회의, 사업부서와의 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해 온라인 설문 조사와 시민정책제안이 가능한 시민광장 광주온(ON)을 신설하고 월요대화, 정책소통 등 현장 목소리 경청을 통해 정책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또 집단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솔직한 대화로 갈등을 풀어가기도 했다. 지난 1년 30여차례 진행된 '월요대화'에는 시민 960명이 참여했고, 실제로 교육정책관·반려동물복지팀·외국인주민지원과 신설로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21곳의 현장으로 달려간 '정책소통'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체계 강화, 3대 사망사고 줄이기 범시민운동, 공공심야어린이보육원 등의 결실을 맺어졌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통을 위해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대표 등을 추가 위촉한 노사민정협의회, 복지원탁회의 등을 새롭게 시작했다. 시민 소통 창구인 민관협력위원회, 권익위원회,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광주시 각종 위원회 내실을 다지고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병수/기자

함평군-함평영화학교, 재활승마 보급 위해 '맞손'



전남 함평군과 함평영화학교가 재활승마 보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4일 "함평영화학교와 이날 오전 군수실에서 공공·재활승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박상래 함평영화학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재활승마 활성화를 통한 말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군은 승마 인프라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등 재활승마 운영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함평영화학교는 체협활동, 스포츠클럽 등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애 학생들에게 치유 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활승마는 곧은 자세를 통한 재활뿐 아니라 말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형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 등 관련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공공·재활승마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하반기 첫 행보는? 경제현장!

남해안벨트 경제허브도시 완성 의지 다져

노관규 순천시장이 택한 하반기 첫 행보는 경제 현장이었다. 순천시가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경제현장 방문으로 하반기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어진 정례조회에서는 정원박람회 500만 관람객 돌파 대국민 감사와 향후 경제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주) 단 조립장 설립 예정 부지에서 펼쳐진 현장 방문에서는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과 해룡산단(2-2)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이 이루어졌다. 앞선 29일 노관규 순천시장과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주) 손재일 대표가 우주발사체 분야 협력을 위한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주) 단 조립장구축TF 정광수 팀장이 브리핑을 맡았다. 브리핑에서는 현재까지 단 조립장 건립 추진 상황 공유와 함께 누리호 발사체 준행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해룡산단(2-2) 조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

졌다. 608,000㎡(18만 평)에 달하는 해당 부지는 지반침하 걱정 없는 튼튼한 암반 지형으로 최첨단 정밀부품 제조·생산의 최적지다. 시는 해룡산단(2-2)을 최첨단 산업인 우주, 이차전지 생산기지로 개발해 시의 경제 영토를 더욱 확장할 전망이다. 노관규 시장의 이러한 비전은 7월 정례조회에서도 밝혔다. 유현호 신임 부시장과 함께 진행된 이날 조회는 2023정원박람회 500만 돌파에 대한 대국민 감사 퍼포먼스와 함께 향후 경제시정을 강조하는 노 시장의 당부 말씀으로 무게감을 더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흥행은 남해안벨트 전역의 호재로 작용했다. 2023정원박람회는 개장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정원박람회 자체 매출만 해도 286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정원박람회로 순천을 방문한 500만 명의 관광객들은 여수, 광양, 고흥, 보성 등 남해안 각지를 함께 방문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박람회는 순천만



잘 살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말이 입증된 셈이다. 순천은 이처럼 정원박람회를 통해 남해안벨트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내며 생태경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정원박람회 성공 개막의 에너지를 시장 전반으로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임기 2년 차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순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민선8기 1주년 소회를

밝혔다. 한편 새로 부임한 유현호 신임 부시장은 전라남도 경제통상과장, 투자유치담당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전라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을 역임한 경제통(通)으로 잘 알려져 있다. 평소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의 삼합이 성공적인 시정을 위한 주역이라 강조해왔던 노 시장의 말처럼, 경제시정을 표방하는 민선8기 순천시정과 유현호 부시장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승준/기자

김산 무안군수 민선 8기 1주년 "기념식 대신 새벽 현장으로"

김산 무안군수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조하고 생생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기 위해 기념식 대신 새벽 현장부터 봉사 현장까지 적극적인 소통행정에 나섰다. 김산 군수는 지난 3일 꼭두새벽부터 제일선 행정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클린센터를 방문 격려하고 아울러 새벽 출근버스인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 출근길을 찾아 따뜻하게 환송했다. 이어서 정길수, 나광국 도의원과 김경현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산훈훈탐을 참배하고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념식 대신 직원 위주 청렴한 정례조회로 간소화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했다. 송달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정례조회는 모범공무원 시상으로 1년간 성과, 군민의 생생한 현장 영상,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시청하고 민선 8기 2년차 새로운 다짐을 외치는 군정 구호와 청렴 결의대회로 마무리 지었다. 또한, 김산 군수는 정례 조회가 끝난 이후에도 무안군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을 깜짝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담은 급식 봉사를 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토대로 나눔 봉사행정을 직접 실천했다. 이외에도 직원 모두가 민선 8기 2주년을 새롭게, 청렴하게 시작하는 의미로 으뜸서비스 담당마을 427개 경로당을 일제 청소를 추진하게 했으며 김산 군수는 5일부터 읍면 분회 경로당 방문 순회하여 지역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진솔한 이야기



를 청취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아무리 작은 일도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결정했고 무안군이 대내외적으로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9만 군민과 8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면서 앞으로 민선 8기 2년 차도 '세게로 비상하는 더 큰 무안'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과 군민이 제갈할 수 있는 '행복 무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영진/기자

박홍률 목포시장, 큰목포 실현 희망찬 미래 비전 제시와 발판 마련

박홍률 목포시장은 3일 "지난 1년은 목포 미래 100년을 생각하며 목포발전만을 생각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목포만의 특색을 지닌 정책으로 민선 8기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역점시책을 설명했다. 박 시장이 꼽은 주요성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기반 마련, 신성장동력인 친환경선박과 수리조선산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중심지로 도약, 대규모 지역축제 성공개최·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성, 목포-신안 통합분위기 조성 과 상생기반 마련 등이다.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기반 마련에 대해 박 시장은 총 사업비 306억원이 투입되는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총 사업비 264억원이 투입되는 2023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K-디지털 플랫폼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면서 탄력이 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성장동력 산업인 목포 친환경선박과 수리조선산업은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에 현재 국비 1,032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585억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집적화단지를 순조롭게 조성 중이다. 2025년 건립될 해양수산부정비청과 함께 지역 조선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리조선산업은 올해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의 스마트 수리·진단·관리 지원체계 구축 공모에 선정돼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수산식품 산업을 우선나라 제 1호 김산



업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와 함께 세계적인 김 산업의 메카이자 목포 어묵의 세계화를 위해 순조로운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어서 박 시장은 목포가 대규모 지역축제를 성공개최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3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2천만 관광객 시대로 도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해 관광객이 전년 대비 26% 상승한 730만명 정도가 다녀간 것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목포오감힐링 골목길 문학마을조성사업, 달리도와 외달도 낭만예술촌 조성 사업 등이 선정됐고 2024~2025국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유치로 2025년에는 목포의 맛을 활용한 사상 첫 국제음식행사인 국제남도미식산업박람회를 개최해 관광자원의 매력을 더욱 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목포가 대규모 지역축제를 성공개최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3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2천만 관광객 시대로 도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해 관광객이 전년 대비 26% 상승한 730만명 정도가 다녀간 것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목포오감힐링 골목길 문학마을조성사업, 달리도와 외달도 낭만예술촌 조성 사업 등이 선정됐고 2024~2025국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질없이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풍력산업의 거점항이 될 신항에 대해서도 현재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와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중이 있는데, 앞으로 1,000억원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해상풍력지원부두와 배후단지 조성을 국가기본계획과 발맞춰 진행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별교부세 확보에 힘쓰고 결과 16건에 96억8천7백만원의 확보했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시민들의 염려가 많았던 시내버스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거론했다. 먼저, 운행과 종단을 반복한 시내버스는 양도·양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정상운행하기로 버스회사와 합의했다면서 노선체계 개편, 운영체계 확립,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다이옥신 발생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했음을 피력하며 수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민간투자자가 운영하는 스토커 방식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학도 호텔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익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투명성·공정성을 원칙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집중호우 피해현장 긴급점검

피해 주민 위로하고 빠른 일상 복구에 모든 행정력 동원 지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지난 6.29~30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영주·봉화지역의 주택, 도로 등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6월29일,30일 양일간 영주·봉화에는 호우경보, 상주·문경 등 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되기도 했다.

특히, 영주 이산면에는 320mm로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봉화 상운면 279.6mm, 예천 효자면 199.6mm 등 경북 북부내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기록적인 폭우로 집안에 토사가 밀려들어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도로·하

천제방 유실, 전기·마을상수도 단절 등 많은 피해가 속출했다.

이철우 지사는 봉화군 봉성면 하천제방 유실에 따른 농경지 피해지역을 찾아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안정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매물사고가 발생한 영주시 상망동 주택피해 현장을 방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 유가족에게는 행정적 지원과 의료지원(심리치료 등)으로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호우로 특히 영주, 봉화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장마 및 태풍 등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항구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민선8기 1주년 기념 행사 개최



의성군은 3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1주년 기념 및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 수여를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고,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구한의대학교 김성삼 교수를 초청하여 ‘공정의 힘, 소통’이라는 주제로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화합을 위한 소통 특강도 진행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민선8기 남은 기간 동안 군민이 스스로 행복한 의성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의 여

정도 모두가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은 3년 연속 귀농 가구 수 전국 1위 달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도정 시책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바이오 산업 육성, 주민자치·청년지원 등 지역주도 특성화 정책 강화,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선진 미래농업 기반을 다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성군 전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금자/기자

영양군,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

외부 전문기관 위탁, 전화친절도 평균점수는 88.34점

영양군은 7월 3일 직원조회 시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4개 부서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직원들의 전화응대 수준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외부 전문업체 용역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23개 부서 전 직원 중 204명(42.5%)을 대상으로 44일(4월 19일 ~ 6월 1일)간 실시했으며, 전 부서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8.34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결과 93.33점을 받은 재무과가 1위(상금 50만원 및 상장), 93.11점을 받은

보건소는 2위(상금 30만원 및 상장), 93점과 92.29점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와 생태공원사업소가 각 3, 4위(각 상금 20만원 및 상장)를 차지했다.

평가는 민원인으로 가장한 전문요원들이 부서별 업무내용에 적합한 가상 시나리오로 각 부서별 최소 7통 이상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수상부서를 칭찬하면서 “전화응대가 조직 이미지와 신뢰도 형성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응대수준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민선 8기 1주년 권기창 시장 ‘안동 대전환 함께 만드는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새로운 도전 이야기

권기창 안동시장이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도전과 혁신의 힘찬 새 발걸음을 내디딘다.

지난 민선 8기 1년 동안 안동시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 등재 최초 도시, 경상북도안전체험관 건립 최종 후보지 선정 등 시민 숙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계획이다.

‘더 높이 더 멀리’ 새롭게 조직개편 단행

안동시는 7월 중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미래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조직으로 바꾸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간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부서 신설, 1,0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분야 개편, 시민 편의 중심 ‘ONE-STOP 서비스’를 위한 종합허가과 신설,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맑은 물사업본부 설치,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 통합 등 역점사업 완수를 위해 새로운 포석을 깔았다.

권기창 시장은 “전 직원이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안동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마다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달라”라며

“지속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청년들로 들쭉거리는 안동을 만들 수 있도록 1,500여 공무원이 전진 또 전진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안동시 최대 현안은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

민선 8기 2년 차 안동시의 최대 현안은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다. 안동과 예천이 함께 힘을 모아 경북 신도청을 유치했다. 양 도시가 상생발전하고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다시 한번 역량을 모아 나간다. 양 도시간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 공론을 활발히 진행해 시·군민의 뜻에 따라 통합을 위한 결연을 이룰 계획이다.

우선, 안동시는 예천군과 맞손을 잡고 지난 5월 도청 신도시의 문제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력회 협약식’을 개최하며 상생의 교류를 시작했다.

안동댐 인근 천혜의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하는 안동댐 주변의 수자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 재미와 감동이 있는 역동적인 콘텐츠를 입혀 새로운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해나간다. 안동댐 진입로 빛터널, 월영교 인근 상설 수상공명장, 댐사면 대형미디어파사드 등을 조성해 새로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리나 리조트, 유람선, 수상호텔, 경비행기 등으로 관광



객들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선 폐선구간과 구역사부지 ‘핫 플레이스’ 조성중앙선 폐선구간과 구역사부지를 안동의 핫플레이스로 조성한다. 구 역사부지에 키즈테마파크와 솔테마파크, 야외물놀이장 등 체류형 복합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고 남북연결도로를 개설하여 도심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앙선 폐선구간 35.1Km에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간이역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로 테마역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복합문화레포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 이야기안동시는 경북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성장축으로 지역경제 100년 대도약의 전환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

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적극 대응하며, 국내 우수기업 유치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이룰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에 더해, 경북북부지역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유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 교육자유특구 유치에도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북도청 소재지 안동의 잠재력을 깨워 경북의 신성장거점 도시는 물론, 글로벌 백신 바이오 허브 도시로 부상해 시 승격 60주년을 원년으로 미래 100년 안동 발전의 대전환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권기창 안동시장은 3일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향후 시장의 비전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박형준 시정 1년, 부산의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드높이다!

부산시가 민선8기 출범 첫 1년을 맞았다. 민선8기를 시작하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시정의 새로운 가치 구호(슬로건)로 내 건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정의 혁신 기반을 새롭게 다지고 현안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그야말로 쉼 없는 1년을 달려왔다.

부산에 대한 평가와 시선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보급선거로 박형준 시장이 처음 들어선 1년여의 기간 부산에 혁신의 파동을 일으켰다면, 이어진 민선8기에는 혁신의 물결을 더욱 확산하며 변화의 노력을 거듭해온 결과, 이제 부산에 대한 평가와 시선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올해 6월 발표된 영국 지연사의 ‘글로벌 스마트도시 평가’에서 서울을 앞지르며 세계 19위, 아시아 3위 도시로 올려놓았고, ▲세계적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터넬리전스 유닛(EIU)은 ‘세계 살기 좋은 도시’에 부산을 아시아 6위로 평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도시브랜드 평가’에서는 10개월 연속 부산이 전국 1위로 평가받아왔고,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시민행복지수’에서도 특광역시 1위의 평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내셔널지오그래픽의 ‘2023년 숨이 막히도록 멋진 여행지와 체험장소 25곳’에 선정되는 등 이제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브랜드와 매력 이 부산의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지난해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부산시 등 ‘코리아 원팀’을 결성,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전개해오면서 2030세계박람회 개최 최적 도시로 부산의 유기 가능성을 계속 높여오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 때 보여준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환대와 강렬한 유치 열기는 실사단에게 인상적인 광경과 감동을 안겨주었고, 정부와 국회, 부산시, 민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차라내면서 실사단으로부터 모든 것이 준비된 도시 부산이라는 찬사를 이끌어 냈다.

지난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는 유석열 대통령이 제4차 경쟁 발표(프레젠테이션)의 연사로 직접 나서며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강렬한 유치 의지를 또 한 번 전 세계 회원국 대표들에게 전달하면서 부산에 대한 지지세를 더욱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한층 더 기대되는 분위기다.

박람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부산의 굵직한 현안들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기덕도신공항 건설은 박람회 개최 이전

인 2029년에 조기 개항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23.3.)을 이끌어냈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기 보상착속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단초도 마련했다.

또 하나의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이전도 국토부의 부산 이전기관 지정·고시(‘23.5.)가 이루어지며 마지막 법 개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박람회 개최 예정부지인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도 최단기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22.10.)하면서 이후 절차들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며 본격 계획단계에 들어선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구축’을 비롯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23.55.)된 ‘부양을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대형 기반시설(인프라) 건설사업들도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 창업, 디지털·신산업 육성과 지식 협력력이 튼튼바꿔처럼 유기적으로 골라가며 그 성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조성, 글로벌 금융클러스터(D-Space) 본격 가동 등 글로벌 금융중심도시에 걸맞는 기반시설(인프라) 확충과 함께, 블록체인 특화 지구(클러스터) 조성,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육성 등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지난해 부산에 첫 ‘아시아 창업 엑스포, 플라이 아시아(FLY ASIA) 2022’를 개최하며,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고, 부산형 모태펀드 ‘1조+알파(a)’ 조성 추진, 지식산업센터 확충,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등 아시아 창업도시를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해오면서, 민선8기 1년 동안에만 4초 6천여 원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과 함께,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해양데이터 기반 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역혁신의 동력인 지산학협력체계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지역 혁신중심의 대학원체계 ‘라이즈(RISE) 시범지역(‘23.3.)과 ‘지자체-대학 지역혁신사업(‘23.2.)에 선정되어 지역주도의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과 산학 연계 강화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여가고 있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와 오페라하우스 건립, 국제아트센터 개관 준비가 속도를 내면서 창작·배려 제작, ‘클래식 파크콘서트’ 개최, 버려진 시장(플리마켓) 활성화 등

문화예술·공연 생태계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서 부산의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아르떼뮤지엄’ 유치, ‘9.81파크 조성’ 등 글로벌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위케이션, 미식관광, 해양레저 등의 분야로의 확장도 적극 추진 중이다.

민선8기 박형준 시장 또 하나의 큰 이정표인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서도 많은 변화와 성과를 냈다.

박형준표 대표사업인 15분 도시 조성을 기치로 따듯한 공동체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만들어냈다. 부산형 복지·돌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형 사회보장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촘촘한 복지·돌봄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개소(‘23.4.), 부산사회서비스원 개원(‘23.4.) 등 체계적 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신노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하하(HA-HA)센터’ 조성에도 속도를 냈다.

또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출산지원금 확대, 다자녀 지원 확대를 비롯해 부모급여 신설, 부산형 영유아보육 확대 운영,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등 출산·보육 지원시책이 강화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러키 7 하우스’, 희망더함주택, 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 공급 등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안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체질 강

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시범운영, 내진보강 강화, 시민안전보험 최초 시행, 첨단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등 시민안전 도시 구축과 서부산의료원 건립,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립공공병원 건립, 찾아가는 의료버스 확대 등 공공의료 확충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친환경지능형(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해 수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수소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친환경 교통도시 조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민선8기 첫 1년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실현을 위해 혁신의 기반을 다지며 변화와 성과들을 일구어온 시간이었다면, 이제 남은 3년은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최고 행복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데 역량을 들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부산시정만큼 약속드렸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주하게 달려왔고, 부산에 많은 변화와 성과들이 있었다. 이는 저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부산 시정에 뜨거운 애정과 성원으로 함께한 부산 시민들 덕분이다”라면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최고 행복도시로의 도약을 더 빨리 앞당겨갈 수 있도록 저와 부산 시정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중진/기자

청송군, 재가 치매환자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 도입

7월부터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협약을 맺고 등록된 관내 재가 치매환자 중 독거 노인 또는 치매부부 10가구를 대상으로 7월부터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재가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AI 스피커를 통한 인지강화, 사회성유지, 투약관리, 365일 안전관리(긴급SOS) 등 포괄적 건강관리 돌봄을 지원한다.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 '아리아'를 활용한 365일, 24시간 비대면 안심 돌봄 제공 서비스는 치매 돌봄 공백 최소화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신 기술을 더한 돌봄 케어 서비스가 좋은 사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가 치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민의 골든타임 '닥터헬기'가사수한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임무 개시 10년 달성

경상북도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출범 10주년이 됐다.

2013년 7월 4일 경북도는 안동병원에 닥터헬기를 배치해 전남,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경북에도 '하늘을 나는 응급실'을 개소했다.

경북 닥터헬기는 2016년 4월 5일 1천회 달성을 기록, 2018년 12월 27일 2천회, 그리고 2023년 5월 31일 누적 출동 3천회를 기록했다.

아울러 2019년까지 매년 300회 이상 임무를 수행했으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평균 170회 가장 출동했고 2023년 7월 현재도 154건의 출동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경북 닥터헬기는 2021년 기준 지연출동률 0.0%로, 단 한건의 지연출동도 용납하지 않아 응급환자의 이송과 신속한 치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닥터헬기 이송환자 2천863명의 분류 결과 중증외상환자가 25.6%로 가장 많았으며 응급뇌질환 22.4%, 심장질환 14.8% 순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및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소 당시에는 EC-135 기종이 경북 하늘을 날며 환자의 목숨을 구했고, 2018년부터 이탈리아 AW-109 기종으로 교체되어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다.

AW-109기종은 비록 소형이지만 최대 이륙중량 3,175kg, 탑승가능인원 6명, 최대운항거리 120km(편도) 등의 우수한 제원을 자랑한다.

경북도는 닥터헬기가 도내 각지를 날며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착륙장 18

개소를 포함해 인계점 115개소를 설치했으며,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착륙장 신설·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해나갈 계획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탑승해 현장에서 날아가며 각종 응급의료장비를 이용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닥터헬기로 중증응급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을 낮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욱 전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의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구미시⇔에이펙스인텍(주) 투자양해각서 체결...304억 원 투자



구미시는 3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에이펙스인텍(주) 김권진 대표, 시의회 의장, 부시장,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에이펙스인텍(주)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에이펙스인텍(주)은 26년까지 총 304억 원을 투자하고 40명을 신규 고용해 IOT 기반 도로 조명 장치 설비 상시 누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태양광발전 장치를 개발·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원격 점검 체계 도입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기설비의 안전 정보를 취해 화재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광발전 장치를 비롯한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보안등, 스마트플 개발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에이펙스인텍(주)은 1997년도에 설립해 국내 도로조명 산업을 이끄는 강소기업으로, LED 조명, LED 경관조명,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 보안등 등을 생산하며 자체 기술 개발한 LED 투광등은 국내 항만, 공항, 철도 타워 조명, 스포츠 시설 등에 활발히 설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발전 사업,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에 역점을 두고 독자적인 입지를 갖춘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투자를 결정한 김권진 에이펙스인텍(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아낌없는 행정·재정 지원으로 에이펙스인텍(주)이 LED 조명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장치를 신성장동력 삼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김동현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시대, 역사적인 첫 발을 딛다

3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식 개최

대구광역시는 2023년 7월 3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800여 명의 내빈과 함께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2020년 7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전제조건으로 추진한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이라는 3년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은 국가정책적 목표로 이뤄진 기존의 편입 사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진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편입 사례이다.

기념식에는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김진열 군위군수,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특히 이날은 군위군 주민 300여 명과 화재현장에서 소방관과 함께 활약하고 있는 대구·군위 의용소방대원 100여 명, 대구광역시 교육 인사 100여 명을 초청해 대구-경북 상생·화합 발전의 토대가 되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에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딤표 뮤지컬스타' 출연진의 공연을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웰컴 세리머니, 기념사, 축사, 인사말씀,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영상은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추



진 결과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힘차게 비상하는 대구 미래 50년의 비전을 담았다.

웰컴 세리머니는 군위군민 대표 두 명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게 군위군 브랜드 슬로건인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목판을 전달하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대표 두 명에게 대구광역시의 새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꽃목걸이를 전달했다.

축하공연은 대구 미래 50년의 주역인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군위 소년소녀합창단이 '꿈을 이루자'와 '대구찬가'를 합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특히 '대구찬가'가 나올 때는 기념식 참석자 전원이 제창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의 개막을 알린 대구광역시는 군위를 활용하여 대구경북신공항, 첨단산업단지 와 에어시티를 조성하는 등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토

대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의 광활한 대지는 대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라며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 대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중심이 되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영덕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실태조사'를 영덕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영덕복지재단은 7월 14일까지 9개 읍면, 유관기관에 사회적 고립가구를 추천받아 기초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최종 확정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8월까지 심층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가구 형태, 경제 및 주거상황,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이다.

영덕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건



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망고링', '망고자두영주' 상표 출원

영주시가 신소득과수로 중점 육성 중인 플럼코트에 '망고링', '망고자두영주' 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명품 브랜드화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플럼코트'는 플럼(자두)과 애플리코트(살구)의 합성으로 자두와 살구를 교배한 과일이다.

시는 플럼코트만의 특별한 맛과 우수성 홍보를 위해 망고와 비슷한 색과 식감을 갖고 있으면서 자두와 같이 둥근 이미지를 형상화해 '망고링'과 '망고자두영주' 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난달 각각 상표출원을 완료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망고링 포장디자인과 홍보물품을 제작했다. 포장 디자인은 '오늘은 새콤 내일은 달콤'이라는 홍보문구를 활용해 후속시커먼 당도가



높아지는 플럼코트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민의 브랜드의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플럼코트를 널리 알리는 데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시한 '망고링'이 신소득 작목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유통망 확보 등 물심양면으

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플럼코트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을 비롯해 비타민 A, 비타민 C,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피부미용, 시력보호, 변비 등에 효능이 높다. 또한 7월 말 이전에 수확이 끝나고 병충해가 적으며 재배가 쉬운 장점이 있다.

영주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플럼코트를 지역 신소득 과수로 육성을 시작해 현재 22농가가 플럼코트를 재배 중이다. 작년에 첫 수확이 이루어졌으며, 유통전략을 통해 플럼코트를 홍보하고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해 시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키울 방침이다.

윤근수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포스코와 함께 낙동강의 기적 만들자”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50주년 기념식 열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포항 포스코 대회의장에서 열린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포스코가 2030년까지 73조원을 주력 사업장이 있는 포항 지역 등에 투자한다고 밝힌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준공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철우 지사는 “포스코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모두의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라며, “해외에 나가면 사람들이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다고 종종 물어 보는데, 우리 경북에 포스코가 있다고 말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모르는 곳이 없다. 포스코가 우리 지역 기업임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포스코에서 친환경 미래소



재 대표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2030년까지 12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그 중 73조원을 포항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한다고 하니 이보다 더 기분 좋을 수 없다”

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업은 절대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서로 소통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포항시민들과

포스코 임직원, 경상북도가 다시 한 몸으로 뭉쳐 낙동강의 기적을 만들어 세계 초일류 국가를 만들어 가자”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실버복지관 위탁협약 체결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영덕군 실버복지관 위탁운영 협약 체결

지난 달 30일, 영덕군은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황세진)과 영덕군 실버복지관 운영을 위한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영덕군 실버복지관은 영해 공공실버주택 내(영해면 동해대로 6560)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034㎡ 규모의 노인복지관이다. 6월 23일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다.

위탁협약에 따라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세대통합지원센터(센터장 안창근)는 5년간 영덕군 실버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대구한의대학교 세대통합지원센터의 실버복지관 담당 박미숙 시설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생활지원, 사회화 교육 등 기본 프로그램과 한방의료봉사, 한방물리치료실 등 한방의료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광열 군수는 “이번 위탁협약 체결을



통해 영덕군 실버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축하 인사를 전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 실버복지관은 준비를 거친 후 7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장문화/기자

경주시 - 월성원전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의료장비 지원 MOU 체결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 따른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합의 일환으로 마련

경주시와 월성원자력본부가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주시 의료장비 PET-CT 지원'을 위한 이번 협약식은 지난 3일 오후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한성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체결한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합의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월성원전은 지역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지원해 암, 치매, 심장 질환 등의 조기진단으로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원전소재 지역민의 건강불안 요소를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

자력본부는 PET-CT 장비 구입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경상북도도 경주시에 10억원을 보조한다.

첨단 의료 장비를 운영할 사업자는 공모



를 통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선정됐다. 해당 장비를 통한 검사 시 경주시민은 검사비의 30~4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김한성 월성원자력 본부장은 “이번 의료장비 지원사업이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월성원전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지자체, 지역기업, 공공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민 건강증진 도모의 혁신적인 모범 사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문경시, 범시민 친절운동 유공 기관·단체 표창



문경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1주년 기념 정례대회에서 2023년도 상반기 친절운동 유공 기관·단체로 문경축산협동조합, 문경관광진흥공단, 문경시새마을회를 선정하고 표창했다.

문경시는 민선8기 시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에 추진하던 공직자 친절운동을 지난 1월부터 범시민으로 확대 추진하며 관내 기관·단체의 능동적인 동참을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하고 적극적인 친절운동을 추진한 기관·단체를 표창했다.

문경축산협동조합은 예금업무부터 외식업 및 축산물을 판매업무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펼치는 기관으로서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만족에서 감동으로-”라는 자체 친절 슬로건을 선정하고 주 1회 CS 교육을 실시하며, 친절직원을 표창하는 등 자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문경시의 관광사업과 관련 시설 및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친절 관광도시로서 문경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애진했다. 관광공단으로

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긍정마인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TF팀인 ‘긍정혁신TF팀’을 구성, 주제별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과 함께하는 스마일 공기업’이라는 뉴비전을 선포하며 고객의 행복과 소통 및 친절 등 고객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육,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문경시새마을회는 근면, 자조, 협동 3대 정신으로 국민운동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문경시 범시민 친절운동의 전파를 위해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2회의 문경시 친절운동 캠페인을 추진, 기관·단체 및 범시민까지 문경시 친절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문경시 범시민 친절운동의 확산을 위해 애써주신 관내 모든 기관 단체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문경시 친절운동 3대 원칙에 맞춰 동참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농협 · 청송영양축협, “양수발전소 유치 기원 릴레이 캠페인”에 한마음으로 동참!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는 7월 4일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앞 사거리에서 영양농협 및 청송영양축협 임직원과 함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오도창 영양군수, 양봉철 범군민 유치위원회 상임의장, 황대규 청송영양축협 조합장, 영양농협 및 청송영양축협 임직원, 영양군청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소멸위기의 영양을 살릴 단 하나의 기회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힘을 보탰다.

영양군이 유치를 추진하는 양수발전소는 국비 2조원의 건설비가 투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구 증가, 인프라 확장, 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가 있으며, 매년 14억 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영양군을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전 군민이 발전소 유치를 열원하고 있다.

한편, 영양군은 6월 30일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 양봉철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추진위원회 상임의장 등 20여명이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방문하여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황대규 청송영양축협 조합장은 “영양의 숙원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는 그날까지 우리 영양농협과 청송영양축협에서도 계속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봉철 상임의장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이른 시간에도 캠페인에 나서주시는 영양농협 및 청송영양축협 임직원, 영양군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양수발전

소 유치는 영양군의 마지막 희망이며, 영양 최대 국책사업인 만큼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양수발전소를 반드시 유치하자”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수해 2차 피해 방지 위해 총력



봉화군이 수해 지역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월 4일부터 5일까지 봉화군에 강우가 예보됨에 따라 박현국 봉화군수는 2차 호우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원의 긴급상상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 3일 오후 봉화 봉성면과 상운면 수해현장을 찾은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호우피해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봉화군의 열악한 재정력으로는 응급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신속한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

세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2차 호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봉화군의 가용자산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수해 관련 관계부서를 통해 철저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복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봉화군에서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내린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응급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금자/기자

청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막아라!

물놀이 관리지역 7개소 안전지킴이 배치

청송군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7월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지킴이 14명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군은 행락철 강과 하천 등을 찾는 피서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7개소(월막하천, 청운하천, 마평교, 얼음골, 방호정, 지소하천, 고와하천)에 각 2명씩 물놀이 안전지킴이를 배치했으며,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순찰과 예방활동을 하는 등 물놀

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물놀이 안전지킴이의 배치·순찰 강화와 물놀이 위험안내표지판 및 인명구조 물품 정비, 지속적인 안전문화 캠페인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에서 단 한건의 물놀이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전직원 지지 선언

통합과 화합으로 대대적인 유치 지원 나서



경북도는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대적인 유치지지 운동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3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문화엑스포 직원들이 함께 모여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지지 염원을 담아 첫 유치 지지선언 릴레이에 나섰다.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승진자 및 문화엑스포 직원 임용장을 수여하고, “하나되어 비상하자”라는 주제로 전 임직원들이 하나 되는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로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뜨겁게 달아오른 통합과 화합의 열기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경북문화관광공사 전 임직원의 힘찬 응원으로 이어졌다. 경주는 현재 유치 경쟁 도시 중 유일한 중소 기초자치단체로 국정과제인 지방의

균형발전 실현과 관광·경제 활성화에 안성맞춤인 도시다.

문화, 관광, 산업, 보안, 숙박 및 회의시설 등 정상회의 개최지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다.

한편,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결정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치 경쟁에 나선 지역은 부산, 인천, 제주 등이다.

경북도는 공공기관 등 범도민이 참여하는 화합으로 뭉친 힘찬 응원을 바탕으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만드는데 경주에 유치해 도정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시작으로 경북통상,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 도내 공공기관의 전폭적인 유치지지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2030세계박람회 유치 협조 위해 불교계 지도자 예방

- 서울 조계사에서 불교지도자 예방... 부산시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10여 명 참석
- 불교계 유치협조 당부, 총무원장 스님 불교국가 서한문 발송 및 방문 등 특사역할
- 2030세계박람회 유치되면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발전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 기대

부산시는 지난 3일 오후 3시, 서울 조계사에서 불교계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조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진우스님)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6월 총무원장이 스리랑카 불교계와 만나 2030세계박람회 유치 협조를 당부하는 등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국가들에 서한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 특사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장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여야 구분 없이 힘이 되어 주고 있는 만큼 부산이 반드시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총무원장 스님은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으며, 총무원장은 불교계가 적극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송종진/기자



김학동 예천군수, 시내버스 통학노선 직접 점검

예천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 호응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난 4일,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예천을 원도심과 호명면 경북도청 신도시 구간 시내버스에 직접 올라 군민들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김 군수는 오전 7시 30분 경북도청 신도시 대한적십자사 앞에서 출발하는 77번 버스를 타고 중점인 예천여자고등학교까지 이동하며 운행현황 파악은 물론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없는지 살피는 등 주민 밀착 행정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학동 군수는 “직접 버스를 타고 주민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우리 예천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신념하에 교육 여건이 돋보이는 명품도시 예천군 건설을 위해 황소처럼 묵묵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김학동 예천군수는 의례적인 기념행사에서 벗어나 지난 3일 정례회를 통해 직원들과 함께 1년간의 발자취와 주요 성과를 담은 동영상 시청하며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고 군정에 적극 협조해준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지난주 100mm가 넘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없는지 둘러보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조사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하는 등 군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 행정으로 눈길을 끌었다.

윤근수/기자

케이메디허브, 실험동물 스트레스 줄일 수 있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실험동물의 복지수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단 연구진들이 ‘어떻게 하면 실험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해 해외저널에 논문을 2건 게재했다.

동물 실험은 의약품 및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사육되다보니 연구자들에게는 동물들의 스트레스 노출이 항상 고민거리이다. 세계적으로도 실험동물의 스트레스 감소와 복지 증진을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육 환경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우수동물실험시설 인증과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 international) 인증을 받을 만큼 동물복지에 신경쓰고 있다. 실험동물의 건강검진, 승인 후 모니터링, 플레이그라운드 제공 등 동물 복지를 향상시켜 실험의 재현성을 높이고 생명가치를 존중하려 노력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는 실험동물의 복지와 건강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줄이는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국내에서도 올해 4월 27일 실험동물 복지를 담당하는 전임수의사 제도가 시행될 정도로 실험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환경이 실험동물의 스트레스 감소시키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케이메디허브 연구진은 실험동물 중 마우스와 개를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며 체중 및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보다 넓고 공기 순환이 잘 되는 환경 제공과 동물종별로 적절한 환경풍부화 놀이도구를 제공해주었을 때 실험동물 스트레스 지표의 감소를 확인했다. 또한, 설치류 체중 및 스트레스 지표 측정 결과, 무리 사육과 단독 사육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저널인 animals에 2건 게재됐다. 향후 동물종별로 특화된

안동 와룡면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 선정 ‘주민 삶의 질 UP’

- 문화·체육 거점센터 조성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
- 면 소재지와 배후마을 간 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안동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 공모사업에 '와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 복지, 체육 등 생활 SOC를 확충해 공공거점기능을 보완하고, 배후마을 주민에게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안동시는 성공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28억 원을 포함한 총 40억 원으로 연 면적 500㎡ 규모의 문화·체육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노후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한다. 이와 함께 면 소재지와 배후마을 간 생활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해 와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울릉군, 민선 8기 출범 1주년 새로운 도전과 변화 예고

남한권 울릉군수는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 3일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과 현안 사업장 등을 방문하며 민생 챙기기에 주력했다.

이번 행보는 관광객 입도가 다소 늘어났지만, 농업 등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기념행사는 최소화하되, 군정 내실화와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쳐가겠다는 남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먼저,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 출범 1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어서 울릉의 정체성과 자연생태의 상징을 담은 도시 브랜드 '에메랄드 울릉도'를 공개하며 울릉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와 함께 앞으로 군정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했다.

남 군수는 기자간담회의 인사말에서 “민선 8기가 출범한 후 산재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온 지난 1년의 값진 시간들이 앞으로 헤쳐가야 할 많은 일들의 해법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는 대변혁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내딛는 걸음이 울릉의 미래 100년을 좌우하게 된다.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7개 분야 76개 세부공약사항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6대 역점시책인 △울릉도·도독 지원 특별법 제정 △울릉공항 개항과 기반 인프라 구축 △환원전하고 안전한 일주

도로망의 기반 마련 △어항시설 현대화와 항만 기능 확충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정비·강화 △생태관광의 메카 조성을 반드시 성공시켜 새희망이 가득한 군민이 행복한 울릉의 완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울릉군보건의료원에 입원실을 확보하고 전문의사를 배치함과 동시에 118전대에도 군의관 인력의 배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울릉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체계를 유지하는데 힘쓸 것이며, 관내 유일의 고등학교인 울릉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해서 울릉이 아이를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아까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남 군수는 관내 경로당을 찾아 지역의 민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밑거름 삼아, 군민들이 더 행복한 울릉을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하며

두 번째 현장 일정으로 현안 사업장과 집중 호우 대비 시설 등을 점검하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만이 군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빈틈없는 재난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정현중/조장제기자

충남도, 귀어귀촌인·어울림마을 '전국 1위'

해수부 공모 5명·5개 마을서 충남 2명·2개 마을 대상·최우수 수상



충남도가 귀어귀촌인·마을 전국 공모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쌍끌이'하며 '대한민국 귀어 메카'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도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우수 귀어귀촌인 및 어울림마을 공모에서 태안 편도관 씨와 당진 김규상 씨가 귀어귀촌인 분야 대상과 최우수상을, 태안 가경주마을과 서산 왕산마을이 어울림마을 분야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귀어귀촌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4~5월 전국에서 추천된 귀어귀촌인 및 마을의 사례 발표와 전문 평가위원 심사를 거쳐 수상자와 수상 마을을 선정했다.

충남은 귀어귀촌인 5명 가운데 2명, 어울림마을 5개소 가운데 2개소가 1·2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태안 편도관 씨는 지난 2018년 고향인 안면도로 귀어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바다

체험 등을 통해 어촌계 수익 증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편 씨는 또 어촌정착상담사와 어촌지역 활동가로 위촉받아 예비 귀어귀촌인의 길잡이 역할을 한 점에서도 호평을 얻었다.

당진 김규상 씨는 대도시에서 생활하다 2020년 귀어해 새우 양식을 통해 정착한 뒤,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 수산물 홍보, 지역민 협력 등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어울림마을 분야 대상 수상자인 태안 가경주마을은 어촌계 진입 장벽을 크게 완화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26명의 귀어귀촌·다문화인이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가경주마을은 원주민과 귀어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해 자체 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귀어인과 원주민의 유대감을 높여왔다.

왕산마을은 귀어인과 정례적인 소통의 시간을 갖고, 마을축제를 통해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었다.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aT센터서 열린 2023년 귀어귀촌 박람회 개막식에서 열렸다.

수상 귀어인은 소정의 상금과 해외 연수



참여 기회를 받고, 어울림마을은 해수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혜택을 받게 된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령화·공동화 문제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어촌에 젊은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도록 귀어귀촌인과 어촌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귀어귀촌 박람회 기간 중 충남 홍보관을 운영, 도의 귀어귀촌 정책을 소개했다.

또 귀어귀촌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어촌 특화 상품 홍보 등도 진행해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도내 귀어 가구는 324가구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귀어인은 370명으로, 전국 1013명의 36.2%를 차지하며 역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최정근기자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 개설 초읽기

북방경제권 교역 확대 및 물류 다각화를 위한 강원도-동해시-선사-하역사 간 4자 협약

최근 북방경제권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항에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 개설을 앞두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월 4일(화) 오후 4시, 강원특별자치도 청 본관 소회의실(2층)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심규언 동해시장, 백승교 동영해운(주) 대표이사, 홍영우 (주)용문글로벌포트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컨테이너 국제정기항로 개설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지난 2021년 하버크레인이 도입되어 컨테이너 하역 여건이 크게 개선된 동해항을 이용하는 여러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동해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에앞서, 지난해 1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시장에 유통망과 컨테이너터미널을 보유한 러시아 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이끌어 냈다.

이어 북방경제권을 공략하는 전략과 상호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협력을 찾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유관기관, 단체와 기업 등이 협력하여 컨테이너선 신규항로 개설이라는 동해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

이등원기자

이번 협약을 통해 선사와 하역사는 수출입 물동량 창출로 정기항로의 조기 활성화와 안정적인 하역능력을 확보하고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해 노력하며, 강원도와 동해시는 지원 조례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항로 운항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단계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동해~부산을 잇는 정기항로 취항을 시작으로 물동량 증가 추이에 따라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러시아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등 동해항을 거점으로 글로벌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개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과거에도 컨테이너선 취항을 추진했으나, 하역 인프라 미비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수출입 물동량 부족으로 인해 두 차례 정기항로가 중단되는 등 아쉬움을 거울삼아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심규언 시장은 "동해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동해항 컨테이너선 취항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이끌어내는 일들을 만들고 벌크 화물 위주이던 동해항이 복합물류 거점항만으로 거듭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천안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문화예술 행사 상호 홍보에 합의

박경귀 아산시장 "천안아산, '시민 행복' 위해 계속 협력해야"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경계 지역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대규모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공동 홍보부스 운영 등 상호 홍보하기로 했다.

아산시와 천안시는 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천안아산상생협력협의회 제14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반도체 산업 진흥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신 만큼, 관련 산업 기반을 잘 갖추고 있는 우리 두 도시가 국가 산업의 주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 충남권 대표 도시에서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동반성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도시 모두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는 만큼, 경제뿐 아니라 문화·교육·행정 등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며 고건과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두 도시는 오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양 도시에서 열리는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앞두고 공동 홍보부스 운영, 행사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협조, 국장단 교차 방문 등 상호 홍보하기로 했다.

아산시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정호 아외음악당 일원에서 '아트벨리 아산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을 열고, 락 페스티

벌과 제2회 신정호 아트벨리 별빛음악제, 뮤지컬 영웅 갈라콘서트 등을 펼친다.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충무공 동상 앞에서는 '위터슬라이드 in 신정호'와 '이순신 장군 물총대첩'도 진행된다.

같은 기간 천안시는 독립기념관에서 제1회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한다. 케이팝(K-POP) 콘서트부터 드라마 OST 공연, K-푸드쇼, 뮤지컬 갈라쇼, 미디어파사드 등 한류를 주제로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을 연다.

위원들은 두 도시가 공동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다 이동이 용이한 만큼, 이번 상호홍보가 두 행사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들은 이어 양 도시 경계 지역인 아산시 배방읍과 천안시 신방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산시장택지개발지구 4공구 내 신실을 추진 중인 현대중학교(가칭) 부지가 양 도시 경계에 걸쳐있어 원활한 학교 신설 및 운영을 위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측 위원들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학교 부지를 둘러싼 LH 소유 유통 용지를 두고 양 도시 주민들

의 입장 차이가 있어 협의에 잠시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양 도시는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 향상'이라는 대의에 합의, 우선 학교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경계를 조정하기로 하고 그 외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회의를 마치고 "두 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이기도 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른 만큼 이해관계가 달라 생각과 주장이 다른 사안도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모여 천안아산상생협력협의회를 여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고 신뢰를 공고히 다져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와 천안시는 공동생활권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양 도시의 장과국장급 간부 공무원, 민간 자원위원 등이 참석하는 천안아산상생협력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4년 9월 시작되어 이번 제14차 정기회의까지 아산시와 천안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69개의 안건을 발굴하고, 67개 안건을 협의 추진했다.

김원호기자

태백시,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준공식 가져..



태백시와 태백시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29일 황지동 115-80번지 일원에서 태백시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에 따른 준공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2021년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체계구축 지원사업'으로 태백시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사업이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으로 사무실 신축공사를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자율방범대가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린다"라며 축하했다.

심우섭 태백시자율방범연합대장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방범대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가 더욱 개선되기를 바라며,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자율방범연합대를 포함하여 총 14개(대원 347명)의 자율방범대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상근기자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출범식 개최

청주 관광의 새로운 미래, 스마트관광 앱 '청주여기'가 이끈다



청주시는 3일 동부청고 6동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이재한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사업을 추진한 '디지털로시티 청주 컨소시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그간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 '청주여기' 앱(APP) 홍보 영상 상영 및 기능 시연, 스마트관광도시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터치버튼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공모해 추진한 것으로 기존 관광지에 ICT 기술을 접목해 안내·교통·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한국관광공사 및 충청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7월부터 '디지털

성향에 맞는 관광 코스 추천,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의 스마트 예약·결제, 스마트 택시 예약, 실시간 버스 및 항공 정보 제공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AR·VR 서비스, 동영상 및 여행 에세이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을 직접 편집해 실제 포토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디지털로 북' 기능을 탑재해 청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여행을 기록해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청주여기' 앱은 3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 이용자는 7월 중순부터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앱 개발사업과 더불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와이파이존 조성, 관광 키오스크 설치 등 전반적인 관광 인프라 조성이 수반됐다"며, "향후 '청주여기'가 가진 확장성과 연계성이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제19회 원주사랑 걷기 대행진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원주 명품길 130km 걷기 도전!

원주를 사랑하고 걷기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원주의 명품길 130km를 두 발로 걷는 대장정이 시작된다.

원주시걷기협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원주사랑 걷기대행진'이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치악산 황장목길, 원주굽이길, 섬강자락 나무솔레길, 고둔치옛길, 싸리치옛길, 혁신-기업도시둘레길 등 원주시 일원의 명품길을 걸으며 원주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대학생 이상 성인 8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보호자 동반 시 고등학교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 15만 원이며, 직계가족 2인 이상 참가 시 각 1만 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티셔츠(2장), 모자, 식사(8식), 운행 버스(7일), 보험 가입, 완보증, 간식류 등이 제공된다.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원주시걷기협회(원주시 치악로 1868-7, 3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원주시걷기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의 구석구석을 두 발로 걸으며 원주에 대한 애창심과 원주사랑의 호연기기를 키울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종근)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산림 피해에 대비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 방문으로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산간 계곡 등 19개소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63여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종근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푸르고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나주시, '악취통합관제센터' 개소 ... 연중무휴 악취 모니터링

나주시가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인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전남 지자체 최초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나섰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3일 시청사 별관 로비에서 윤병태 시장, 이상만 시의회장, 도시의원, 부서 관계자 30여명과 악취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는 도비 5억원 포함해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 시청사 별관 3층 전산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신설했다.

공간정보시스템(GIS)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악취발생 상황을 시각화할 수 있는 통합 관제(모니터링)시스템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나주시는 악취 관제를 위해 관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악취측정기 30대(기 설치 5대 포함), 기상관측기 5대를 설치·가동한다.

실시간 악취 상황 자료를 수집, 데이터화 하고 악취 발생 예측, 경로 추적을 통해 선제적인 악취 대응에 나선다.

악취 사라지자 지도·단속을 위한 이동식 악취포집차량도 운영한다.

센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교대·배치돼 24시간 빈틈없는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 발생 시에는 신속한 현장 출동을 통해 즉각 단속에 나선 방침이다.

악취발생 사업장에서 악취 배수가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면 사업장으로 안내 문자가 전송된다.

시민들은 누리집(분야별 정보-환경-날씨악취)을 통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악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앱(악취24), 누리집을 통한 주민 악취 신고 시스템은 8월 중 구축될 계획이다.

김영안/기자

구미시, 여름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구미시는 여름철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7~8월을'하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규격 봉투 미사용,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시간 미준수, 혼합배출 등이며,

시는 읍·면·동 8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주야간 불시 단속을 통해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김영순 자원순환과장은"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239건을 적발해 과태료 1,800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단속 강화를 위해 올해 40대의 불법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곳 적발

러시아산 황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폭염으로 인한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염소, 미꾸라지, 황태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펼쳐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점검 단속했다. 대전시 관내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



포를 조리하여 황태구이정식, 황태전골 등으로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음식점은 순살불닭을 판매하면서 브

라질산과 국내산 닭고기를 혼합해 사용했는데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하여 단속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 내용 공표 및 원산지 교육 이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지속적인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인천 특사경, 무허가 양식업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5개월 간 기획수사 ...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불법 건간망 조업 등 적발

인천광역시는 양식업(해수면, 내수면) 불법행위를 기획수사에 무허가 양식장 운영, 무허가 건간망 조업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장환경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이뤄졌다.

관내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사전 정보를 수집해 단속한 결과,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5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시 수산과와 웁진군은 ▲어구 실명제 위반 ▲선명 미표기▲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5건도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 6건과 시 수산과, 웁진군에서 고발된 사건 5건 등 총 11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중남/기자

한편,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어선법'에서는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선어업분야, 양식분야, 유통·원산지 분야 등 다방면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특사경, 휴가철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단속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집중단속(8월 15일까지)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숙박업소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막기 위해 8월 15일까지 불법숙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 이후 해외 직항노선이 재개되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대구 차맥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엔비 등)을 통해 성행하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스오피스텔,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능한 시설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행위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엔비 등)을 통해 광고를 하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공동위생관리



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덕환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대구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에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숙박업계 영업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직무교육 실시

경남도가 도내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23일 경남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단속 및 수사 활동을 하고 있으나, 본인의 행정업무와 함께 수사업무 병행에 따른 수사 경험 부족과 수사절차의 생소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의 애로 해소를 위해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도는 직무교육에 앞서 교육대상자들의 수사 경력기간, 직무분야, 수사절차 중 관심분야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강의내용과 방향을 설정, 교육의 눈높이를 맞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32년간 근

무한 백운규 전(前)수사팀장이 현장사례 및 오랜 수사경험을 토대로 수사서류의 작성, 피의자 신문 기법, 특사경 우수 수사사례 등을 강의했으며, 평소 수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특사경으로 지명받은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이 대부분으로, 주로 일선 시군이나 소방서 등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 및 소방, 산림 분야 업무에 대해 지명 받아 위반 행위자에 대한 수사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번 교육으로 수사서류 작성과 피의자·참고인 조사, 행정 조사와 수사의 차이에 대한 업무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특사경 대부분이 근무경력에 많지 않아 수사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데, 이번 직무교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최근 특사경의 활동분야가 다양해지고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직무교육으로 전문지식과 수사 능력을 겸비한 특별사법경찰을 양성해, 사회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특별사법경찰은 자동차관리법, 소방, 산림 등 25개 직무분야, 634명이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도민의 불편함을 줄이면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재현/기자

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

하남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던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은 주중과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으나, 정상화 이후에는 주중과 주말 모두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이 3시간 연장된다.

이동형 CCTV를 통한 단속은 현재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상화 이후에도 운영시간은 변동없다.

안전신문고 운영시간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24시간으로 변동없으며, 일반금지구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였으나, 정상화 이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인도(보도)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보도) 구역이 추가되어 앞으로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인도(보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요건은 촬영 각격이 1분으로 단축되며, 기존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과 더불어 24시간 주민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행정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박강호/기자

국민 안전을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전국 어디서든 1분 간격으로 가능!	원인도 불문주정차 신고 구역별 경지선도 포함하여 운영!
--	--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범용코드 번호로 문자 신고
 (1) 불법주정차 신고: 12345678901234567890
 (2) 불법주정차 신고: 12345678901234567890
 (3) 불법주정차 신고: 12345678901234567890
 (4) 불법주정차 신고: 12345678901234567890

신고 대상

(1) 불법주정차 신고: 12345678901234567890
 (2) 불법주정차 신고: 12345678901234567890
 (3) 불법주정차 신고: 12345678901234567890
 (4) 불법주정차 신고: 12345678901234567890

경북교육청,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북선수단 해단식 개최!

우수 입상학교 학생선수 및 지도자 격려 및 축하 행사



상학교 기념품 증정,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영상 시청 등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축하와 격려를 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52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큰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 해단식을 통해 그날의 감격과 영광의 순간을 다시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은 3일 16:00 테케이호텔 경주에서 우수 입상교 학생선수, 지도자, 지도교사, 학교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해단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경북교육청 선수단은 금 48개, 은 42개, 동 48개 합계 138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하며 52년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날 해단식에는 우수 입상 학생과 우수 지도자에 대한 포상금 증서 수여, 우수 입

부산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문가 키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등지에서 교육과정 전문지원단, 핵심(선도) 교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교육과정 전문가 인력 풀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초등학교부터 점차적으로 적용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와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지원, 학교(교사)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자발적·협력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임유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가 나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방향과 주요 개정 사항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또 '새 교육과정 톺아보기'를 통해 참가자들 간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적용에 따른 주요 쟁점 사항, 현장 실행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

청은 올 하반기부터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교육과정 편성·운영 도움 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희망을 열어가는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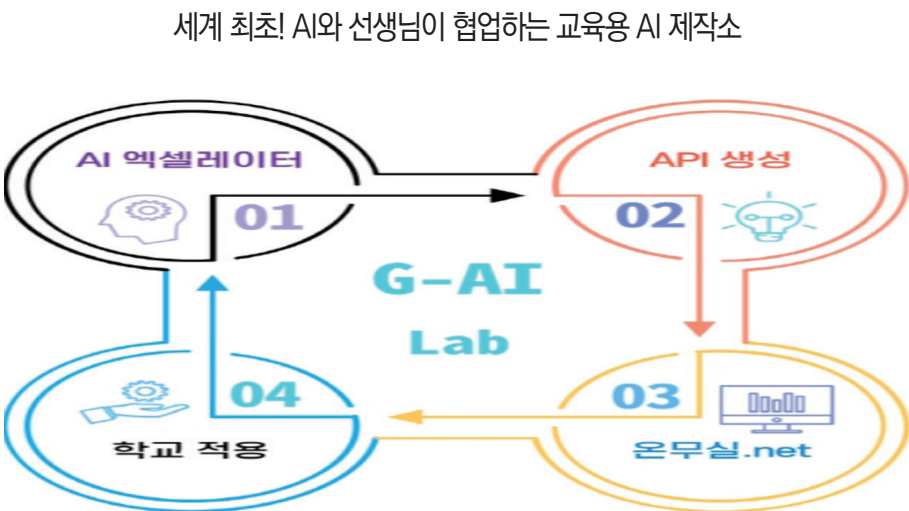


의성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위(Wee)클래스 컨설팅 실시

의성 위(Wee)센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위(Wee)클래스 운영 내실화 도모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7월 3일 의성고등학교에서 위(Wee)클래스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위(Wee)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난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내 위(Wee)클래스가 설치된 12개교(의성초, 의성남부초, 안계초, 의성중, 의성여중, 경북중부중, 안계중, 의성고, 의성여고, 의성유니텍고, 경북소프트웨어고, 안계고)를 직접 방문하여 위(Wee)클래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과 자문을 실시했다. 의성 위(Wee)센터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관내 위(Wee)클래스에서 학업중단 우려 학생 운영 및 위기학생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으며, 이후에도 위(Wee)프로젝트 운영 협의회를 통해 위(Wee)센터와 위(Wee)클래스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했다. 김성중 교육지원과장(의성 Wee센터장)은 "Wee클래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기사례별 상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하고, Wee센터 차원에서 Wee클래스와 활발히 소통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교육용 AI의 산실 'G-AI Lab' 출범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3일 교육용 AI 제작소인 'G-AI Lab'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3월부터 해당 사업을 구상하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파트너로 삼아 추진해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G-AI Lab'은 AI와 선생님이 협업을 통해 교수-학습 및 업무용 툴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에 구축된 실험실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40명의 AI 엑셀레이터라 불리는 연구원이 활동하며, 이들이 협업할 대상은 네이버의 초거대 인공지능 클로바이다. 엑셀레이터들이 한글에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클로바에게 다양한 지식과 기능을 학습시킨 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툴을 API 형태로 개발한다. 개발된 API는 웹에서 구동할 수 있는 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율과제, 학교 운영의 패러다임 바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학교자율과제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자율과제는 학교 스스로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도출한 과제를 실행하는 것으로,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현안과 교육정책을 살펴 현장 맞춤형 교육활동을 실천하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자율과제 서류 절차 간소화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으로 학교 업무 경감 ▲현장 방문, 컨설팅, 연수로 현장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학교자율과제 정책은 과제의 설계, 실행,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학교자율과제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자율과제는 학교 스스로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도출한 과제를 실행하는 것으로,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현안과 교육정책을 살펴 현장 맞춤형 교육활동을 실천하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자율과제 서류 절차 간소화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으로 학교 업무 경감 ▲현장 방문, 컨설팅, 연수로 현장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학교자율과제 정책은 과제의 설계, 실행,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학교자율과제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자율과제는 학교 스스로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도출한 과제를 실행하는 것으로,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현안과 교육정책을 살펴 현장 맞춤형 교육활동을 실천하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자율과제 서류 절차 간소화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으로 학교 업무 경감 ▲현장 방문, 컨설팅, 연수로 현장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학교자율과제 정책은 과제의 설계, 실행,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학교자율과제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행,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학교자율과제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천재일고(교장 김광섭)는 특성화과와 보통과가 있는 학교로, 다양한 구성원이 근무한다.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인성과 진로·진학을 주제로 한 자율과제 실행에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동패중(교장 김의수)은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인성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 실현'을 주제로 정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학교자율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목적사업을 연계해 학교기본운영비 13%, 교육청 시책 사업 예산 1억 원을 편성했다. 초성초(교장 이춘석)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반영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과제를 설계했다. 맞춤형 수업, 두드림학교, 어깨동무교실, 어깨너머 맞춤형 교실을 운영해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전교생 행복 승마교실, 생태 텃밭 에코 교육과정 등으로 학생의 꿈과 진로를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학교자율과제 정책을 통해 학교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라며 "교육공동체가 협업하는 자율적 학교문화를 정착하고, 교육적 가치를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오산시, 2023년 청소년종합예술제 성료...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 빛났다

오산시가 주최하고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하는 '2023년 오산시 청소년종합예술제'가 지난 1일 오산문화회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오산시 청소년 예술제는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이다.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여 교류와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이번 예술제에는 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의 4개 분야 17개 종목에 28개 팀 306명의 청소년이 출전했다.

또한 오산대학교 보컬-KPOP콘텐츠과, 나수민(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박민준, 박

휘범(안무가)의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어져며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참가자 중 뛰어난 기량을 뽐낸 청소년들에게는 종목별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시상했으며 최우수 입상자(팀)은 제31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 대회에 오산시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오산시 청소년들이 예술적인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장이 됐기를 바란다"며, "오산시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청소년 수련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올 하반기 광주광역시서 이스포츠대회 9개 열린다

대표브랜드 광주이스포츠시리즈·장애인이스포츠대회 등 일정 공개

광주광역시는 3일 오후 한빛동안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진행된 이스포츠대회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광주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는 '광주이스포츠시리즈(GES)' 등 모두 9개 대회가 치러져 리그오브레전드(LOL), 배틀그라운드(PUBG), 카트라이드:드리프트, 피파온라인4, 스타크래프트 등 다양한 종목에서 승자를 가린다.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의 대표 브랜드대회인 '광주이스포츠시리즈(GES)'는 10월 열린다. 경기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카트라이드:드리프트, 발로란트 가운데 선호도 조사로 2개 종목을 결정한다.

한국이스포츠협회가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도 호남제주권 대표선발전'은 7월 개최한다. 대표로 선발된 팀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풀리그 결선에 참가한다.

또 8월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대표선발전을 7월에 치르고, 우승자는 전국 결선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주 중·고등학교 이스포츠대회를 방학기간 개최한다. 광주시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의 명예를 걸고 겨루는 대회로, 입상팀에게 교육감 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밖에도 직장인 이스포츠대회(9월), 지역 PC방과 협업사업인 PC방 최강자전도 마련된다. 연말에는 이스포츠 프로팀을 초청한 이벤트대회를 마련해 이스포츠 관람의 색다른 재미를 선보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의 제1회 장애인이스포츠대회를 유치, 11월 중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이스포츠경기 축제 형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위메이드 이스포츠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장에서 공모를 통해 단체와 동호회 등이 이스포츠대회를 기획하고 실제 운영



한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광주이스포츠경기장 개관 후 지금까지 광주에서 주최하는 대회 외에는 민간 차원의 대회가 거의 없었다. 이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 문외의 많은 비용·인력문제 등으로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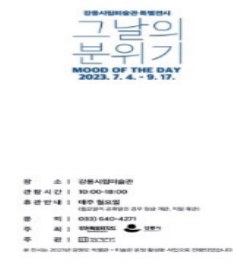
광주시는 '위메이드 이스포츠 사업'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올해는 3개 대회를 지원하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은 경기장 투어프로그램을 통해 경기장의 시설 관람이나 체험행사를 펼치고 있다. 스페이스G는 상시 개방, 동호회나 단체 등에서 소규모 대회나 팀훈련 등을 위해 신청만 하면 무료로 대관이 가능하다. 광주이스포츠경기장 누리집에 접속하면 대회나 관련행사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요승 문화체육실장은 "다양한 이스포츠대회와 더불어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스포츠 행사가 지속될 예정이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올해 첫 시행하는 위메이드 이스포츠 사업을 통해 대학 동아리, 직장 동호회, 각종 단체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가득한 이스포츠대회가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강릉시립미술관 특별전시『그날의 분위기』개최



강릉시립미술관은 특별전시『그날의 분위기(Mood of the Day)』를 오는 7월 4일(화)부터 9월 17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자폐화가 이상우작가(2022년 강릉문화재단 박준용청년예술문화상 수상자)의 풍경화 위주 유화 작품 및 프린팅 작품 31점을 소개한다.

본 전시에서는 작가가 최근 다녀온 프랑스 스케치 여행을 통해 탄생한 신작을 최초 공개하며,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작가의 작업실에 보관 중이던 400여 점의 작품이 전소된 아픔을 겪고 재기하는 첫 전시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작가의 특별한 눈으로 바라본 프랑스 배경의 신작인 '샤모니 몽블랑(Chamonix-Mont-Blanc)의 새벽', '알프스 에귀 디미디(Aiguille du Midi)', '니스(Nice) 일출' 등 작가 특유의 편안하고 맑은 분위기가 담긴 풍경화를 선보인다.

젯더미 속에서도 오롯이 희망으로 켜켜이 쌓아 올린 이번 신작에서는 두터운 물감층과 돋보이는 마티에르(matière, 질감)를 통해 시간과 변화는 그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제3전시실의 작품 중 6점은 이번 산불로 전소된 유화 작품의 고해상도 사진이 남아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캔버스 천에 프린팅하고 원자 그대로의 사이즈로 구현해 놓았다.

특별전시는 강릉시립미술관 제2, 3, 4 전시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을 녹여낸 작품을 감상하며 본인만의 '그날의 분위기'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부산시, 청년문화축제 사상인디스테이션 10주년 기념행사 '회상(回想)' 개최

7.4~7.30. 사상구 사상역에 위치한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개최

부산시는 부산의 대표 청년 독립(인디) 문화 거점 공간인 사상인디스테이션(사상구 사상로190)에서 개관 10주년을 맞아 '사상인디스테이션 10주년 기념행사' '회상(回想)'을 7월 4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의 대표 청년 독립(인디)문화 거점 공간인 사상인디스테이션(사상구 사상로190)에서 개관 10주년을 맞아 '사상인디스테이션 10주년 기념행사' '회상(回想)'을 7월 4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 앞에 컨테이너 27개를 쌓아 지상 3층 2개 동 규모로 건립된 사상인디스테이션은 2013년 7월 개관 이래 다채로운 공연, 전시, 청년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부산의 대표 청년 인디문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도 기획 및 상설 공연,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짧은 영상 강좌(숏폼 클래스), 작곡 강좌(클래스) 등), 대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남정은 부산시 청년산학공장은 "사상인디스테이션 개관 10주년을 맞아 평소 체험하기 힘든 길거리그림(그라피티)이나 비보잉, 스케이트보드 등을 국내의 예술가(아티스트)들과 함께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상인디스테이션이 부산을 대표하는 청년문화 거점 공간으로 청년들이 사랑하고 자주 찾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진진/기자



제4회 짚내나는 시흥시 월곶물총축제, 22일 개최

월곶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가 오는 7월 22일 11시부터 16시까지 월곶어울림센터 옆 나눔주차장에서 '제4회 짚내나는 월곶물총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바다와 육지의 공존'이라는 월곶의 지역 특색을 담은 축제로 발전시키고, 세대를 넘어 화합하는 놀이문화로 정착시키고자 기획했다.

특히 한여름 더위를 이겨낼 다양한 이벤트가 더해져 눈길을 끈다. 워터슬라이드, 키즈존·장애물 물놀이 등 주요 물놀이 외에 나무보트 만들기 등 체험 행사와 대나무 물총 사격, 수박 빨리 먹기 등 이벤트 게임, DJ쇼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광주시는 '위메이드 이스포츠 사업'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 제26회 무안연꽃축제 기념 사생실기대회' 신나는 연꽃축제 놀러와 내 고향을 자랑하세요

'2023 무안연꽃축제'를 기념하여 무안군청이 주최하고 무안문화원이 주관하는 '제26회 사생실기대회'가 오는 7월 22일에 개최된다. 행사는 10시부터 16시까지 일로움 화산백련지 연꽃축제 행사장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생실기대회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자 애郷심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한다.

주제는 '우리 지역의 자랑', '나의 여름방

학', '아름다운 백련'으로, 전국에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랑거리와 여름방학의 즐거운 추억이 담긴 그림, 연꽃축제 기념 대회인 만큼 백련이 담긴 그림들을 공모한다.

참가접수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당일(7월 22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분야는 수채화, 동양화, 서양화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여타 공모전의 출품작 및 당선작품과 유사하지 않은 미발표 작품이어야 하며, 1인당 1점만 제출할 수 있다.

수상작은 총 80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전라남도지사상(1명), 전라남도교육감상(3명) 등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은 이후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되며,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문화무안 23호"에 게재된다.

접수 방법은 팩스와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거나, 무안문화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문화원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문화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진/기자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7월의 카니발'성황리 개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행사 펼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

부천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 시민참여 행사인 '7월의 카니발'을 개최했다.

이번 시민참여 행사 '7월의 카니발'에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 소향로 일대에서 ▲바리퍼레이드 ▲별난 푸드트럭(푸드존) ▲승천나이트(DJ파티 및 초청 뮤지션 공연) ▲세기의 혈전(물총 싸움)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다.

특히 물총 싸움 이벤트인 '세기의혈전'은 성인·어린이 시간대를 각각 나눠 진행했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 펼쳐져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소향로에서는 서커스 놀이터와 얼음 놀이터를 조성해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마련했다. 행사장 인근에 푸드트럭 공간도 마련해 시민들의 허기를 책임질 먹거리도 준비했다.



밤 시간대에는 잔디광장에 설치된 대형 천막 내에서 전자댄스음악(EDM) 공연인 승천나이트를 열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대형천막 내의 화려한 조명과 태권도 퍼포먼스팀의 공연으로 많은 시민의 발길을 끌었다. 총 2회 진행된 승천나이트는 회당 3,000여 명이 참여해 총 6,000여 명의 시민이 행사를 즐겼다.

시민참여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바리퍼레이드는 안중근공원과 신중동역 미관광장에서 각각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출



발,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합류해 '7월의 카니발' 개막을 알렸다. 시민이 화합해 하나의 행렬을 이루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를 나타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BIFAN을 '축제로서의 영화제'로 발전시켜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며 "부천시 대표 축제인 만큼 앞으로도 다채롭고 즐거운 이벤트를 계속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용민/기자

안동에서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초청 공연 열려

소천권태호음악관에서 7월 7일(19시 30분) 음악관 강당(지하1층)에서 "우크라이나 이바노 프란키브스크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제예술교류협회의회에서 주관하고 주한 우크라이나 문화원이 후원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풀란드, 몰도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타국에서 지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개최된다.

'이바노 프란키브스크 필하모니(Ivano-Frankivsk Philharmonic)'는 도시의 주립교향악단이다. 교향악단의 수석주자와 우수한 단원으로 구성된 실내악단은 동서유럽의 수많은 음악축제에 초청되기도 했다. 2022년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독일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이다.

소천권태호음악관은 "매년 다채롭고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번 공연을 통해 시대적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여유를 즐기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한다.

유근수/기자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초청 음악회

Ukraine Ivano-Frankivsk Philharmonic String Orchestra

2023. 07.07. (금) 19:30

소천권태호음악관

공연안내 054-821-7779



민심은 의회로
의회는 민의로



화성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최

2023. 7. 12. (수) ~ 7. 14. (금) 3일간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